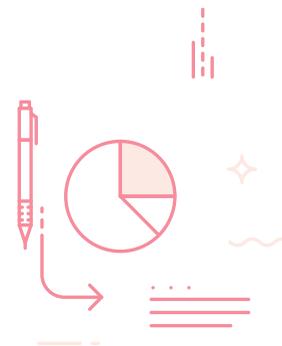




교육분야 5년 2017-2022 성과자료집



2022. 4.



교육분야
5년
2017-2022
성과자료집



목차

01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1	초·중·고 및 대학의 전면 원격수업 시행	10
2	교육분야의 선제적인 일상회복 추진	14
3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16
4	학생 건강·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방역 강화	19
5	코로나 상황 속 돌봄 지원	22
6	코로나 상황 속 안정적 대입 실시	24

0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8
8	온종일돌봄 확대	32
9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완화	33
10	기초학력 보장 강화	37
11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38

03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12	고교체제개편	44
13	대입 공정성 강화	45
14	사학혁신 추진	46
15	학교폭력, 학생자살, 성희롱·성폭력 예방	47

04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토대 마련

1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52
17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53
18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54
19	직업계고 혁신 및 고졸취업 지원 강화	56
20	미래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	58
21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60

05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

22	대학 간 공유·연계를 통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66
23	지역-대학 간 협력 기반 지역 혁신인재 양성	68
24	산업-대학 간 협력 강화	70
25	학술진흥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73
26	대학 자율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등 지원	76
27	전문대학 혁신 지원	79
28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81

06 전 국민 대상 평생학습체제 강화

29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6
30	평생교육바우처, K-MOOC 및 매치업 활성화	88

07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31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체계적 준비	94
32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95
33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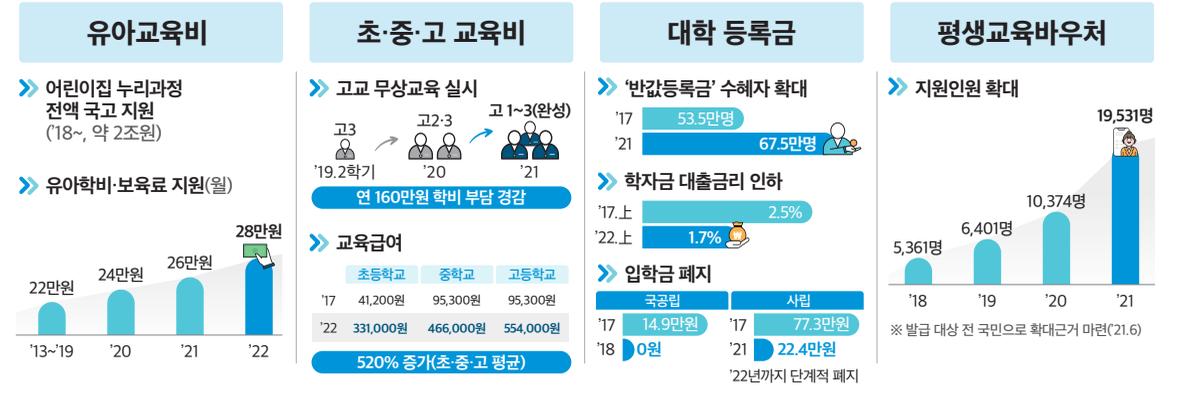


국민체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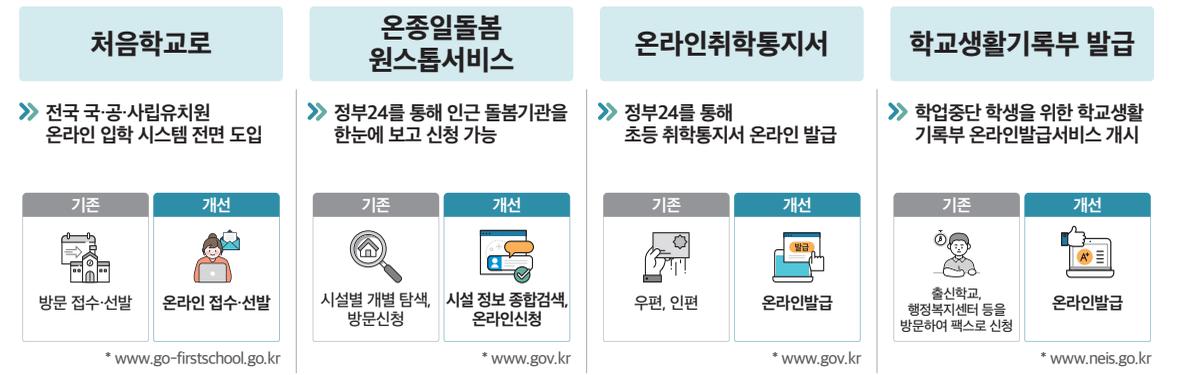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교육비 지원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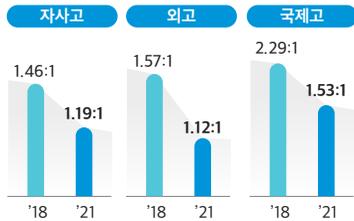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 자사고·외고·국제고 '25년 일반고 전환 추진('20)
- 고입 동시 실시로 고입경쟁률 완화



대입 공정성 강화

- 대입전형자료 개선

학생부 기재항목 조정('22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활동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반영	미반영

* 교사추천서 폐지 ('22학년도)
 *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예정 ('24학년도~)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



사학혁신

-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19) 및 관련법령 개정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 연장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교직원 공개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설립자 친족 등 제외)
학교법인(대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16교) 완료('21)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초·중등 교육 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5년간('21~'25) 18.5조원 / 약 1,400개교 추진
 ※ '21. 484교 조성 개시



2022 개정 교육과정

- '21.4~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 '21.1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고교학점제 도입

- '20 마이스터고 도입(1학년)
- '22 특성학교 도입(1학년)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1,412교)
- '25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미래역량 강화

- '20 초·중 SW교육 필수화 완료
- '20.9 고교 AI 과목 도입
- '21.2 초·중·고 시교육 내용 기준 마련
- '21.9 원격교육법 제정

교원 역량 강화

- '20 교원양성 교육과정 유연화
- '21 교·사·대 미래교육센터(28개)
- '21.12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중단없는 학습 제공

- 전체 초·중·고 온라인 개학('20.4)

스마트기기 지원	학교 기가급 무선망 구축
희망학생 100%	38만실
교원 노후PC 교체	e학습터·온라인클래스 증설
25만여대	일일 300만명 동시접속 가능

-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20.3)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10개소	237교 1,000억

학교 방역

- 방역인력('21.1학기 5만명, 2학기 6만명) 및 물품 지원

- 자가진단앱 운영

연도	유아·교직원 추가, 모바일 앱	학원강사 확대
'20.3		
'20.9		
'20.11		

- 학교밀집도 조정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20.5~)

-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교육분야 백신 우선접종

-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 우선접종 완료

'21.9.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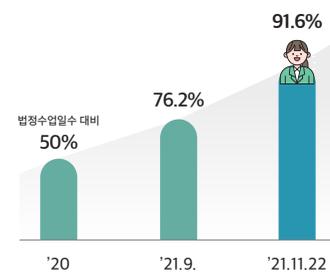


- 12~17세 백신접종 추진('21.10~)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학생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원

선제적 일상회복

- 학생등교율 향상



교육회복

-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1.7)

-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결손 신속·종합 해소 지원

'21.下 성과	
교과보충	학습컨설팅
교·강사 17.6만 명이 학생 131만명(중복포함) 지원	학생 37,800명 지원
정신건강 회복	사회성 함양
총 2,763교, 학생 37,543명 지원	학생 263만명(중복포함) 지원

안정적 수능 시행



'20 약 42만명 '21 약 45만명

※ 확진자 응시보장('20.41명, '21.96명)

고등교육 혁신

공유·협력 기반 혁신

- (대학 내) 학사·석사, 석사·박사 간 정원 조정기준 완화

학사·석사		석사·박사	
기준	'22	기준	'22
1.5/2명:1명	1명:1명	불가	2명:1명

- (대학-대학)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21. 8개 신기술 분야별 컨소시엄 (46개 대학)

- (대학-지역) 지역혁신플랫폼

'20 3개 '21 4개 (71개 대학, 206개 기관)

- (대학-산업) LINC+ 사업 등을 통한 교육과정 확대

산학연계 교육과정(일반대)	채용약정학생 수(일반대, 전문대)
'17 2,105건 '21 2,487건	'17 7,105명 '21 12,430명

고등교육 규제 혁신

- 첨단·융합학과 설치기준 개선

21개 첨단분야 정원증원 허용
 * (21) 45교, 5,761명 ('22) 33교, 2,003명
 * 학칙으로 재학생 대상 연계·융합 학과 운영 기준 마련
 * (21) 16교, 1,203명 ('22) 15교, 1,565명

-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규제 개선

기준	개정
4대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 시 증원 허용	교원·교사·교자·수익용기부재산 확보율 100%

- 대학 간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 허용

대학 간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도입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도입
 * 일정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 추후 모집
 * 모집유보 관련 고시 제정('22.上)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시, 학점이수 제한 완화

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점 1/20내
 개정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결정

-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 허용
 해외캠퍼스 설립 시 학과중설 및 정원 증원 허용
 비등 록금회계 일부 사용 허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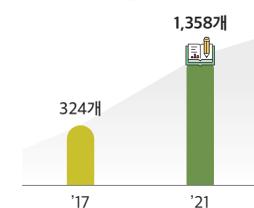
- 대학 원격수업 지원

원격수업 개설제한(20%)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대학원 20%) 폐지
 *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허용

평생교육 확대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 K-MOOC 강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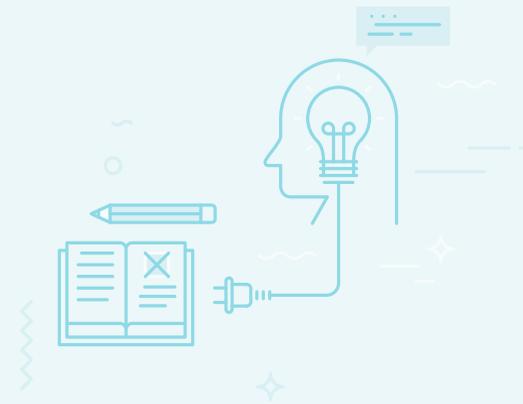
- 산업맞춤형 단기직무능력인증(매치業) 과정 운영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 '17.9 국가교육회의 발족
- '17.9~'2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 총 13차례
- '21.7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제정
- '21.9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01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지켜주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이어가고,
교육 결손을 적기에 회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 초·중·고 및 대학의 전면 원격수업 시행

1-1 코로나 확산 초기에 전면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 단계적 온라인 개학 실시 : ('20.4.9) 고3, 중3 → ('20.4.16) 고1·2, 중1·2, 초4~6 → ('20.4.20) 초1~3



온라인 개학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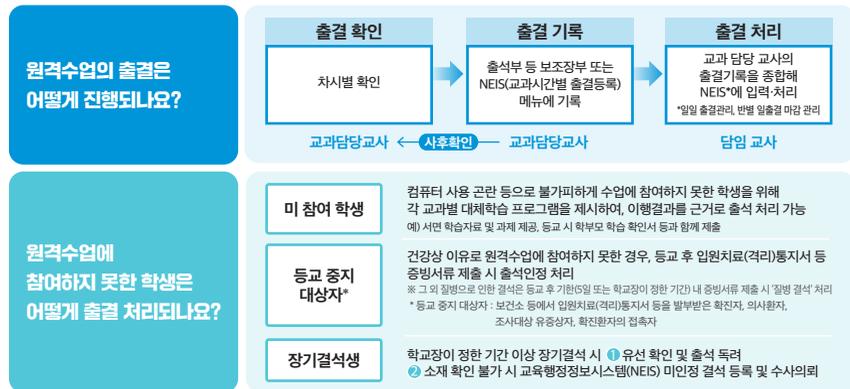


온라인 개학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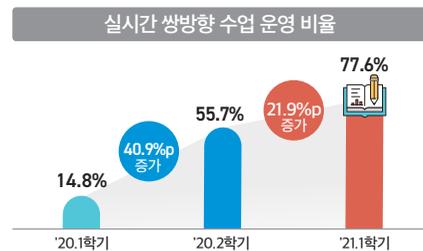


실제 원격수업 현장 참여

» 현장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출석·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하였습니다.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비율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년 고등학교 입학에 앞두고 첫 등굣길을 기대하던 그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통해 정규수업이 시작되면서 걱정을 잊고 즐겁게 새학기를 보냈다. 처음에는 원격수업이 익숙치 않아 서툰 점도 많이 있었지만, 공간의 제약을 넘어 최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집에서 실시간으로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 수업을 듣는 경험이 색달랐고, 수업 종료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더 들을 수 있어 좋았다.

1-2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중단없는 배움을 지원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 모든 초·중·고의 주요 학습공간 31만실에 기기급 무선망을 구축('21.6)하고, '22년 2월까지 교과·특별교실 등 전 학습공간 38만실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 학교에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형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마련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한 교실에서 동시 진행(충북, S초)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영어회화 학습(대구, S초)



체육관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신체활동 진행(충남, A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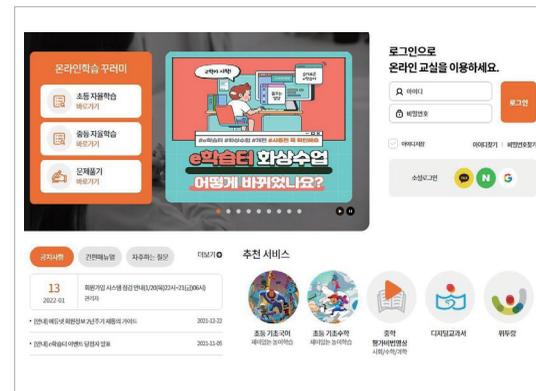
» 신청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무상 대여('21.2학기 18만대)하고, 노트북·데스크탑 등 교원용 기기 25만대를 지원('21.4)하였습니다.

※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30만대 보급('17~'21)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대비하고, 대면수업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서버 증설(각각 일일 300만명 동시접속 가능), 교원의 학습관리, 학생 편의 기능,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 등 제공



1-3 대학의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하고,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학년도에는 대학의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제한(20%)을 개선('20.2)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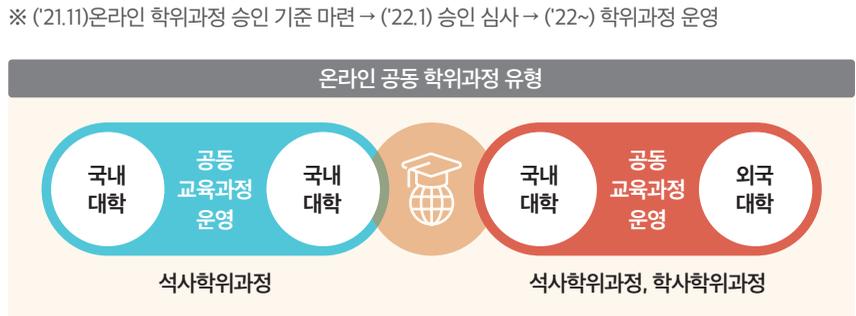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20.2) 주요 내용

- 원격수업**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20% 이내)은 '20학년도 1학기에 적용 배제
 -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확대 및 일반 교과목에 원격수업 적극 활용
- 출석기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휴학기준**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원격수업 질 관리 기준을 제시한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21.2)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양질의 원격 학위과정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 학생은 '20년 1학기 졸업 후 취직이 예정되어 1학기 학점 이수가 매우 절실했다. 혹시 코로나19로 개강이 가을로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연신 불안하였으나, 원격수업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1학기가 4월에 개강하게 되었고, 졸업 필수 강좌를 원격으로 무사히 수강하여 졸업할 수 있었다.

▷ 교수는 학기 초 원격교육 콘텐츠를 만들 생각에 불안함이 앞섰다. 고심 끝에 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니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쉽게 녹화할 수 있었고, 편집 등 콘텐츠 제작과 수업 운영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1-4 대학의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전국 10개소)를 중심으로 모든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권역별 1식) 및 공유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습니다.

*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튜디오(종합·중형·셀프 등) 구축·운영 지원



» AR·VR를 활용한 콘텐츠, 대학 간 공동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우수성과를 공유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등 교육의 질 제고에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20년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2. 교육분야의 선제적인 일상회복 추진

2-1 단계적 등교 확대를 통해 학교의 일상회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20년 5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고3의 등교를 시작한 이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부총리 등교수업 현장방문

대통령 등교수업 현장방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학교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도 지원하였습니다.



교실 내 거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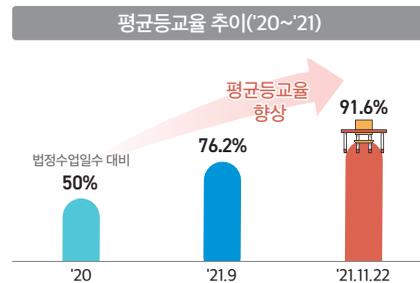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자료집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21년 11월부터 수도권도 전면등교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돌봄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등 걱정이 많았는데 전면등교가 시행되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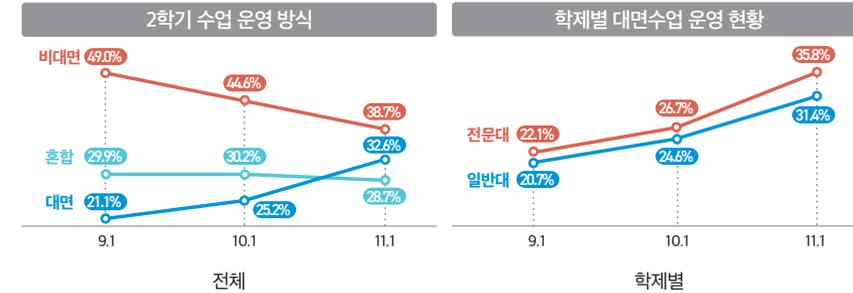
» '21년 2학기 등교 확대 계획*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21.10)'을 통해 '21년 2학기 등교율을 지속 확대하였고, '21년 하반기에는 약 2년 만에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실시되었습니다.

*「유·초·중등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6.24), 「2학기 학사운영 방안」(8.9)



2-2 대학의 대면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을 극복할 수 있도록 '21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주기적으로 대학생, 교수, 대학 실무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21. 총 26회) 하여 대학의 수업 운영과 방역 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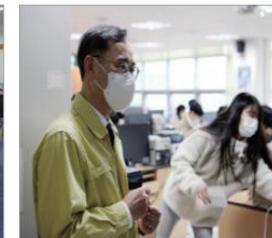
※ 대학생 94,803명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대면활동 확대 발표, 방역관리TF 의견을 반영한 강의실 방역기준 설정, 대학 방역담당자 의견을 반영한 방역지침 개정 등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 애로사항 청취('21.3.26)



단계적 대면활동 확대 현장간담회 ('21.6.17)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현장 방문 ('21.11.9)

» 방역 인력 지원, 교육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학생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1년 방역인력 지원 및 점검



가천대 인근 식당 방역점검 사례

3.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3-1 신속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교육결손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21.7.29) 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주요내용

»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운영('21.9~)하여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밀착형 교육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개최: (1차) '21.9.8, (2차) '21.10.25, (3차) '22.1.13



「교육회복 종합방안」공동 발표('21.7)



민관합동 교육회복지원위원회('21.9)

학부모께서는 각종 언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학습격차가 보도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학교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준 원격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 자녀의 모습에 직장생활에 집중되지 않은 날이 많았다. 더 큰 걱정은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난 후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자녀의 호소였다.

그러던 중 학교로부터 자녀의 수준에 맞는 학습보충 프로그램 수업과 상담 등을 제공받게 되었고, 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정서 지원까지도 받게 되었다.

자녀의 학습, 생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며 교육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학교,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3-2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 모든 학생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희망·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보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회복을 도왔습니다.

» 교사의 진단·추천을 받은 학생과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방학중 현장교사 중심의 소규모 '교과보충'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하) 교·강사 17.6만명이 초·중·고 학생 131만명(중복 포함) 지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사례

- 희망교과 집중지원** 학생 희망과목, 발달수준에 따라 규모별(5명·10명·20명 내외 등)로 다양하게 교과보충을 운영(광주)
- 수학·영어 집중지원** 전환기(초6·중3) 자기주도적학습 지원, 소인수 방과후·방학중 집중지원, 기숙사 수준별·주제별 학습지원, 또래 1:1 멘토링 등 집중지원(강원)
- 독서연계** 짬짬 짬 독서 프로젝트(초등),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중등) 등 학급단위 독서기반 읽기·쓰기 등 문해력 신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운영(서울)
- SI 활용** 수학과목 진단·학습·피드백 등에 SI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고 학습이력 관리, 소인수 그룹 지도, 사이버 수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 수학보충 지원(부산)
-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지원 및 온·오프라인 교과수업, 교재 통번역 자료 제공, 기초보충교재지원 등 교과학습 지원(경기)

» 수석교사와 진로·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일반고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진로 등 분야별 1:1 '학습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 ('21.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7,800명 지원

교과보충 운영 현장



전남 교과보충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



세종 교과보충 "메이교실" 운영



전남 교과보충 "JUMP" 운영



부총리, 교과보충 운영 현장 방문('21.9)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비양은 '21년 2학기 때 방과 후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진행하는 학습 도움 단기에 참여하였다. 비양은 평소 수학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답을 찾을 수 없어 수업에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방과후 학습도움단기를 통해 점점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수학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고, 소규모로 진행되니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다. 비양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을 꾸준히 공부할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3-3 심리·정서·사회성 등 학생들의 마음 회복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 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21.하. 26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심리·정서 회복 지원 사례(경북)

- **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반려동물과 관계 형성 및 펫티켓, 동물관련 직업체험, 농장·동물원 방문 등 체험
- **식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식물 가꾸기, 화분 만들기, 원예 치료, 식물 관련 직업체험, 숲체험, 농장·식물원·자연환경연수원 방문 등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례

- **서울** 학생용 게이트키퍼, 심리 안정화 교육, 마음챙김 영상자료 등 특색 프로그램 운영
- **부산** '예방-지원-치유'로 구성된 학교급별 상담 프로그램(나비) 개발
- **광주** 담임·교과교사가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급별 상담·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경북**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담임교사 등이 활용 가능한 초·저학년 대상 교과·상담 연계 프로그램(자기이해-마음표현-대인관계) 개발

»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서비스와 정신건강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21.하) 2,763교 학생 37,543명 지원

» 비대면 활동 증가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해 단위학교별로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등을 통해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 하) 전체 초·중·고 학생 263만명(중복 포함) 지원

사회성 회복 지원 사례(서울)



(초등) 테라리움 꾸미기 (초등) 플로어볼 하기 (초등) 연극 활동 (중등) 정오 음악회

4. 학생 건강·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방역 강화

4-1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 학생의 감염예방 관리를 위하여 등교 전·등교 시·학교활동 중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 내 방역 체계를 갖추도록 「학교방역지침」을 마련('20.3.24)하였습니다.

※ (등교 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임상증상 여부 제출 (등교 시) 방역요원이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를 통해 발열여부 확인 (학교활동 중) 급식실 칸막이 설치(99.4%), 수시 환기, 소독 등 위생관리



등교 전-자가진단 등교 시-발열감시 학교활동 중(급식시간)

» 학교에 방역인력 6.5만 여명('21. 기준)과 방역물품('20~'21. 약 1,144억원)을 지원하고, 보건교사를 대폭 확충('21. 8,300교에 정원 배치)하였습니다.



방역인력 학생지도 충분한 방역물품 제공 공립학교 보건교사 정원 확대

» 학교, 학원, 기숙사, 학생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 등) 대상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173,471회)하고, 이동형 검체채취팀을 운영하여 학교 내 신속한 확진자 파악과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별방역점검 실시 이동형 검체채취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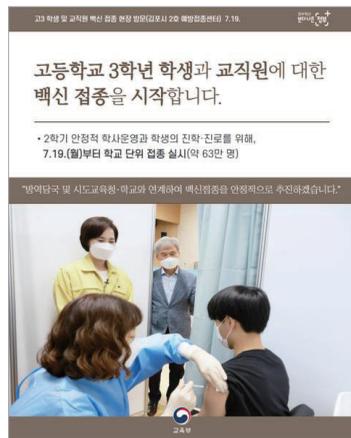
인천 B중학교 보건교사 ○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2년 째 가중되고 있는 학교 내 감염예방 대응 업무로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인력 지원으로 교내 소독, 학생 발열 감시 업무 등을 분담할 수 있었고, 학교 방역지침을 토대로 학교 내 모든 직원들이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며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었다.

4-2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학생과 교직원의 신속한 백신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 학생 감염 예방과 안정적인 학사운영 관리를 위해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백신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 백신접종률(9.17.기준) : 유·초·중·고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 95.4%, 고3 97.3%

-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학교와 소재지 내 예방접종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김포시 2호 예방접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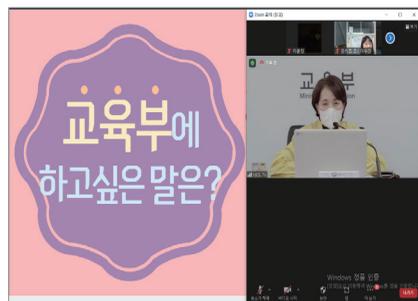
고3 및 교직원 백신접종 현장

» 소아·청소년(12~17세)의 개별 접종참여를 독려하고, 동시에 학교 단위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접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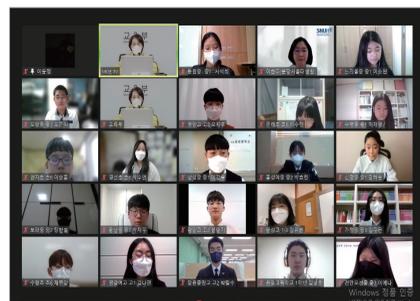
* 수요 설문조사에 29만명 참여('21.12. 2주) → 8.4만명 접종 희망 → 지역별 접종방식 결정 (학교·보건소·접종센터·의료기관) 및 시행 완료('21. 12월 3주~12월말)

» 현장방문,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백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 부총리 접종현장 방문('21.12.21) 및 학생과의 대화(온라인 포럼) 2회('21.12.8, 12.22), 총리 주재 학생·학부모 대화('21.12.15), 특별방송(KBS, '21.12.13), 신문광고('21.12.14)



부총리 주재 온라인 포럼



학생, 학부모 참여

중학생 7명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에 찾아오는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고 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줄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 편히 학교에서 접종받을 수 있었다.

4-3 학원 등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와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 교습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점검하여 학원 등의 방역 사각지대를 차단하였습니다.

※ 교육청별 학원·교습소 현장점검반 및 지자체 연계 '학원합동방역대응반'을 운영하여, 총 241,203개소 점검 실시, 5,548건 계도 등 조치('21.1.1~12.31)

-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학원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선 **백신접종과 주기적인 PCR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1년 4월 이후 전국 학원 종사자 약 392,294명이 수검('22.1.3. 기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학원단체장 간담회('21.7.6)



학원종사자 백신접종 현장방문('21.7.16)



학원 강사 PCR 검사 현장 방문('21.7.16)

» 학원 방역관리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물을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보급하였습니다.



포스터 (운영자 방역수칙)



카드뉴스 (추가방역수칙)



슬기로운 학원생활-이용자편

» 방역 수칙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원단체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협력하였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원단체 간담회('21.12.14)



교육부 차관 학원단체 간담회('2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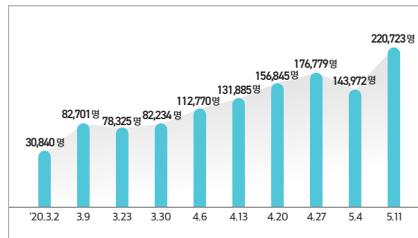
평생직업교육국장 학원단체 간담회('21.12.20)

청주 소재 C학원장은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백신접종이 실시되면서 학원의 감염 위험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안심하였고, 백신접종이 학원 방역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5. 코로나 상황 속 돌봄 지원

5-1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긴급돌봄체제로 전환하여 유치원의 90%가 긴급돌봄을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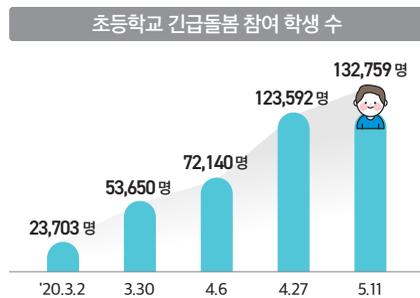
유치원 휴업기간 긴급돌봄 참여 유아 수



긴급돌봄 운영 안내자료(학부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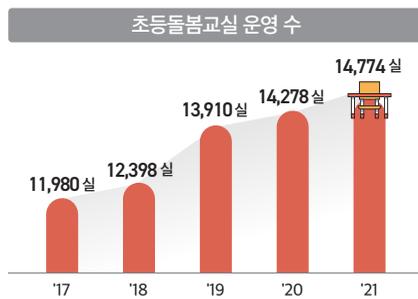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원격학습도우미를 통해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긴급돌봄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원격학습도우미 9,700명 투입('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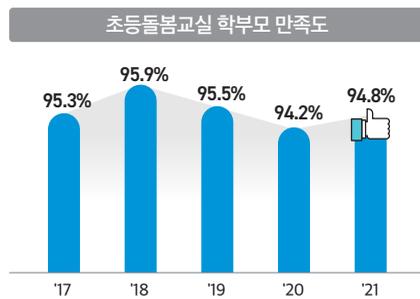


초등학교 긴급돌봄 참여 학생 수

»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학부모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수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D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특성에 따른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주 2~3회 원격수업이 실시되는 3~6학년 학생 중 가정돌봄이 어려운 학생을 파악해 태블릿을 대여해주고 지도강사를 통해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으며, 급식도 실시하였다.

긴급돌봄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운 3~6학년 학생을 별도로 파악하여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하다가 시간별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3~6학년 긴급돌봄 급식반도 운영하였다.

5-2 초·중학생 아동양육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양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년 추석 전후(초등 ~'20.9.29, 중학생 ~'20.10.8)로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약 405만명)에게 아동양육 지원금을 지급(1인당 초 20만원, 중 15만원)하였습니다.

※ 중앙부처(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 등 협조

»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학부모들이 별도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① 아동·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지급, ②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 ③ 기관간 정보제공으로 중복수령 및 불편을 방지하여 국민 편의 확대

» 더 많은 국민이 아동양육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발굴하였습니다.

※ 장기입원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 대상 추가접수 실시('11.3~'11.13), 주 시도교육청과 협력(교육청 재원 활용) 외국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 지급



아동양육 지원금 홍보배너



추가접수 안내배너



각종 홍보활동



학부모 컷시는 소득·재산 등에 따른 선별 지급을 위한 별도 신청 없이 초·중학생 누구에게나 돌봄지원금이 제공되면서 만족도가 컸다.

이번 지원금으로 아이에게 코로나19 시기 면역력을 강화하는 영양제를 사주고, 독감백신 접종도 해줄 생각이며, 학교에 못 가는 동안 읽을 문학전집도 구입할 예정이다.

6. 코로나 상황 속 안정적 대입 실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0년~'21년 2년 간,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차질 없이 수능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 보건소 PCR 검사를 수능전날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 시 현장관리반을 통해 신속히 병상을 배정하여 수험환경 조성

	코로나 전		코로나 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시험장	1,185개	1,383개	1,367개	
별도 시험장	-	113개소	112개소	
병원 시험장	-	29개소	33개소	
관리·감독인력	98,925명	120,708명	128,372명	

응시환경 구축 현황

	확진자		자가격리자	
	2021학년도	41명 (100%)	456명 (100%)	
2022학년도	96명 (100%)	128명 (100%)		

확진자, 자가격리자 수능 응시지원 실적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



대통령 수능시험장 현장방문

☞ 학생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17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확진통보를 받게 되었고,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시청은 즉시 학생의 치료장소를 시험장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배정하고 병원까지 이동을 위한 구급차를 보내주었다. 교육청은 책상을 설치하고 수능시험지를 송부하는 등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병원에 도착한 학생은 감독관 역할을 수행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수능을 무탈하게 치를 수 있었고, 남은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하였다.

» 수험생 대상으로 조기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대학별 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대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고3 및 교사	63만여 명
졸업생·검정고시생 등 수험생	9만 2천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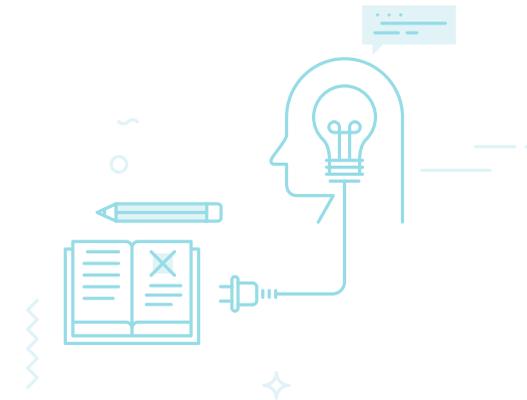
※ 접종기간: '21.7월 ~ 9월



수험생 대상 백신접종 실시



대학별평가 확진·격리자 관리체계





0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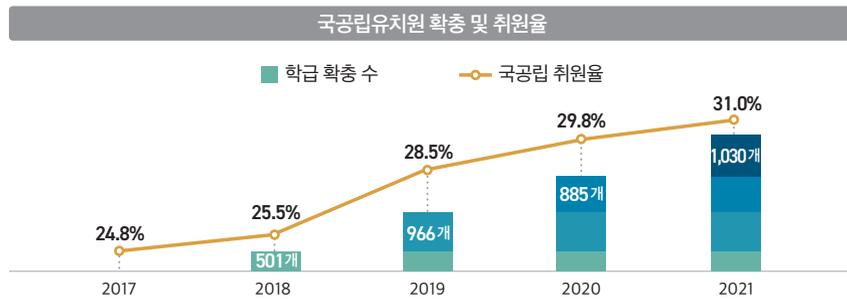
교육·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아교육과 초등돌봄을 강화하고,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복지를 촘촘하게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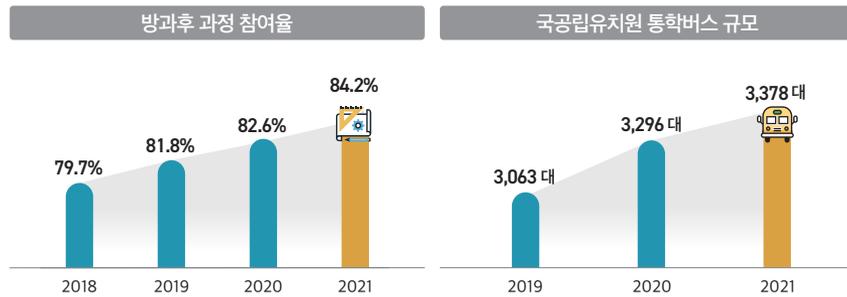
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7-1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적극 확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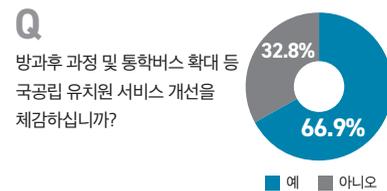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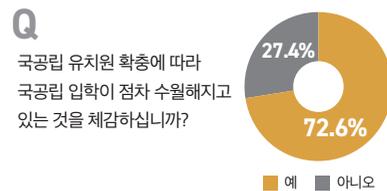
» 4년간('18~'21) 국공립유치원 3,382학급을 확충하고, 유치원 유아의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과후 과정 학급 확대 및 운영시간 다양화, 유아 통학편의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확충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21.7.20~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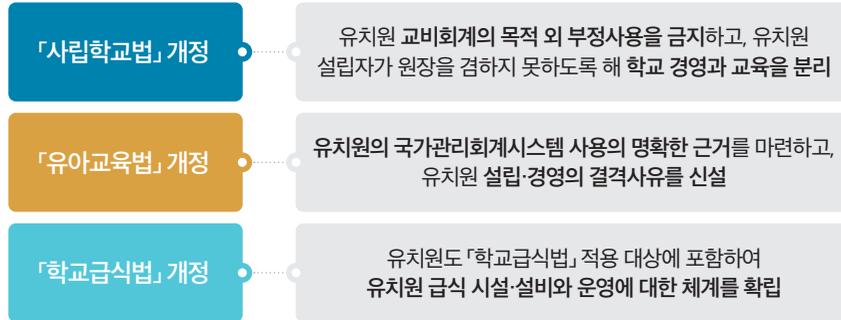


「씨는 첫째 아이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집 주변에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보낼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 아파트 근처에 국공립 유치원이 신설되어 첫째 때와는 달리 입학의 어려움 없이 둘째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씨는 연중 무휴 원칙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서 자녀가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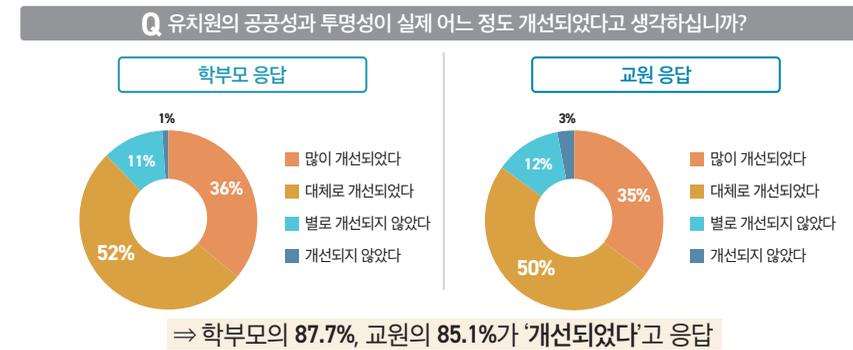
7-2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공공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19년 1월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 관련 홍보자료

» 그 결과, 학부모님들과 유치원 교원 모두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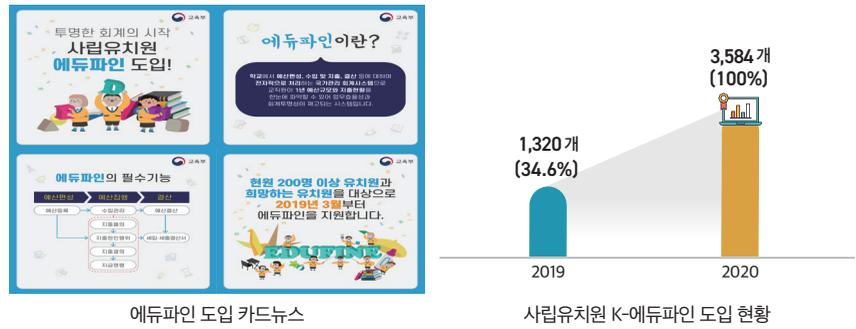


※ '21.7.20~7.24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705개원 중 840개원(9.6%)의 학부모(4,413명 응답) 및 교원(1,031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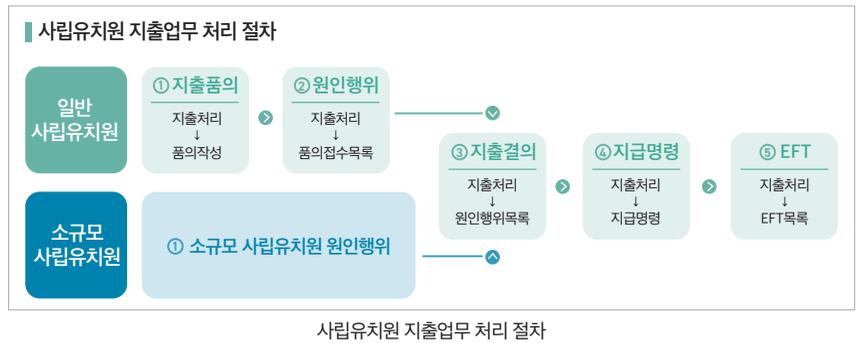
학부모 「씨는 예전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유치원 설립이 어렵고, 유치원비도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하니 유치원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아이들 영양관리를 해주니 식단도 과거보다 더 영양적으로 구성되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7-3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유아교육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 2019년 1단계 도입(1,320개원) → 2020년 전면도입(3,584개원)



» 사립유치원 K-교육파인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이 회계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재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 일정규모(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출원, 출납원 검적이 가능하도록 1인 전결 추가 및 지출절차(4→3단계)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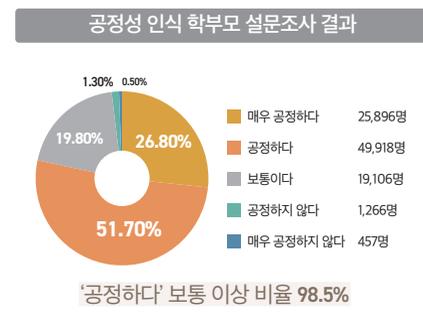
전남 광양의 A사립유치원 원장은 K-교육파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행정인력이 부족해 두렵고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등 도움을 받아 시스템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다.
 기존에는 유치원알리미에서 예결산 현황을 개별로 입력해야 했는데 K-교육파인을 사용하고 에듀파인 자료를 바로 쓸 수 있어서 업무가 쉬워지고 공시내역이 투명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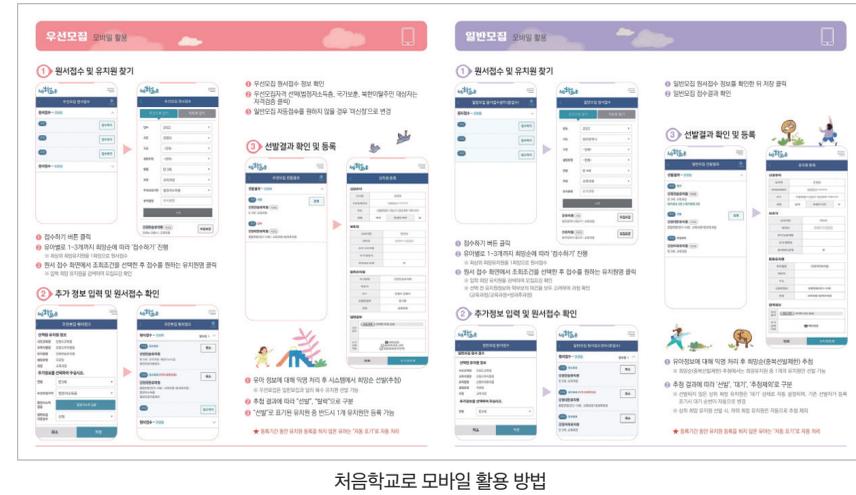


7-4 유치원 입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이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100% 도입하여 공정한 유치원 입학절차 체계를 확립하고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최신 기기와 운영체제(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블로그 등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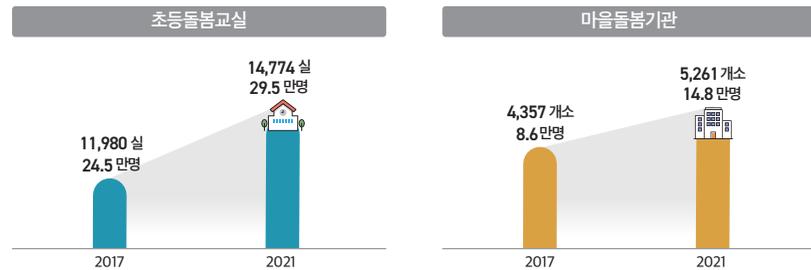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씨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만으로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했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입학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또한 저소득층인 씨는 자신의 자격검증을 온라인 연계로 처리할 수 있어 유치원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였다. 나라에서 공정한 절차로 유아를 선발하니 더욱 안심이 되었다.

8. 온종일돌봄 확대

초등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을 확대하였습니다.

-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18), 학교돌봄터('21)를 신설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집 근처(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돌봄 제공 (학교돌봄터)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교실 내부 다함께돌봄센터 전경 학교돌봄터 안내문

-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 근처 모든 돌봄 기관(초등돌봄교실, 마을돌봄기관)을 한 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에서 온종일돌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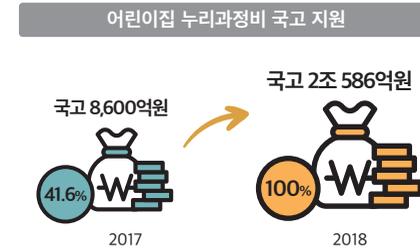


경남 00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돌봄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자녀가 입학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떨어져서 막막했지만, 다행히 근처 초등학교에서 인근 초등학교들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 초등돌봄교실인 늘봄센터를 운영하여 걱정을 덜게 되었다. 늘봄센터는 통학차량 운행 및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돌봄도 제공하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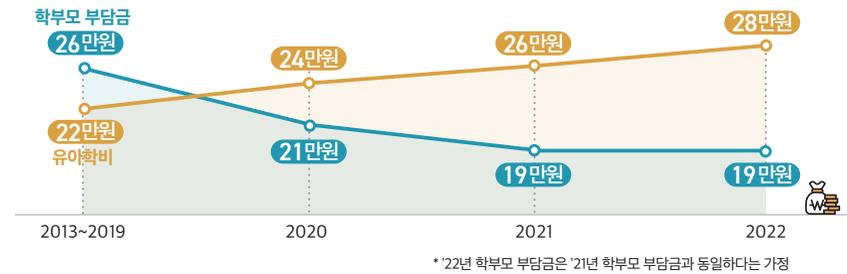
9.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완화

9-1 만3~5세 아이들의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 만3~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전액 국고로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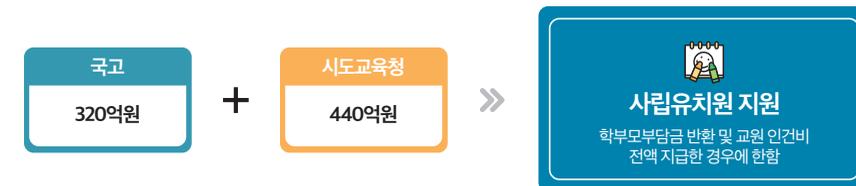
- 3년 연속 누리과정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유치원의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22년 학부모 부담금은 '21년 학부모 부담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휴업기간('20.3~4) 중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를 전액 반환한 유치원에 대해 수업료 결손분 50%를 지원하였습니다.

※ 등원 제한 조치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후 과정 이용시간 조정('20.5~) 및 가정학습 인정일수 확대('20.9~)



3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0씨는 첫째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유치원비 부담이 컸던 경험이 있어, 둘째 아이는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 보육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이 크게 늘어 실제 학부모의 부담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에 둘째 아이도 보내게 되었다.

9-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초·중·고 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 » '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 '04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후, 17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여,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의무)교육 시행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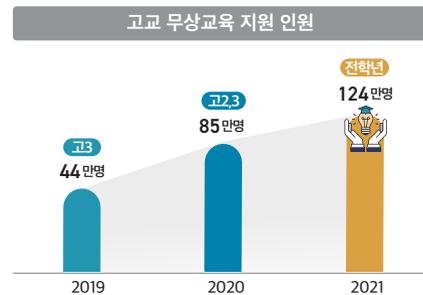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9 법적근거 마련 1959 초등 의무교육 실시 1997 육성회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 법적근거 마련 1985 도서벽지부터 시작 2004 의무교육 실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법적근거 마련 2019 3학년부부터 실시(2학기) 2021 무상교육 완성

- » 연간 약 2조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원을 분담하였습니다.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현황('21.)>

연도	총액	국가	지자체	교육청
'21년 완성연도	19,854억원	9,431억원	992억원	9,431억원
	100%	47.5%	5.0%	47.5%

- » '21년 124만명의 학생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를 지원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올해 고1, 고3에 진학하는 두 자녀를 둔 비씨는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첫째의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 여유가 생긴 기분이다.

9-3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결과, 초·중고 **평균 지원금액**이 '17년과 비교하여 '22년에는 **5.2배** 증가하였습니다.
 -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고교) 지원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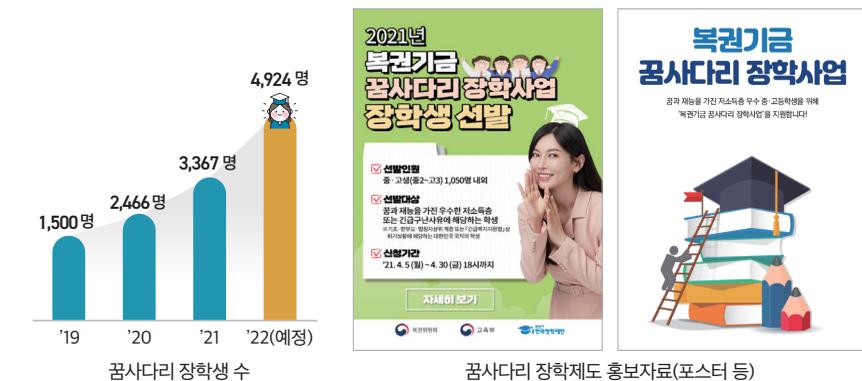
구분	'17	'18	'19	'20	'21	'22	'17년 대비 '22년 증가액	'17년 대비 '22년 상승률
초	41,200	116,000	203,000	206,000	286,000	331,000	289,800	703%
중	95,300	162,000	290,000	295,000	376,000	466,000	370,700	389%
고	95,300	162,000	290,000	422,200	448,000	554,000	458,700	481%

- '20년에는 기존의 항목별(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학생의 교육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 '22년에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재비**와 **EBS콘텐츠 구입비용**(1인당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학업장려금(학교급별 25·35·45만원)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1:1 멘토링, 진로·진학·취업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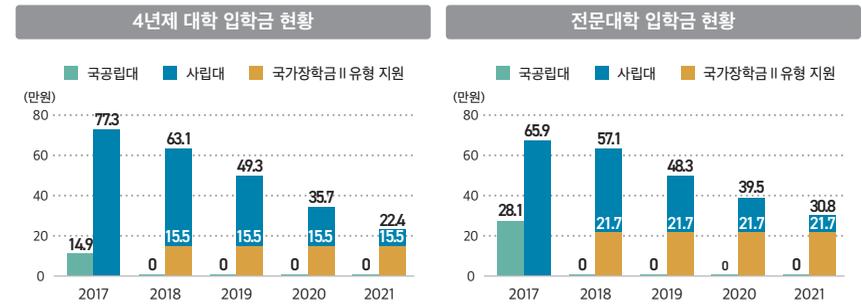


9-4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 국공립대 입학금은 '18년에 전면 폐지하였으며, 사립대 입학금은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 '23학년도 대학(학부과정) 입학자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19.12)



»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회배려계층의 온전한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22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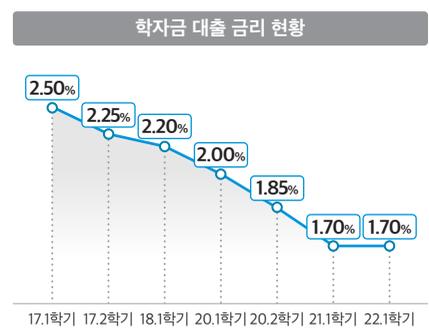


서울 소재 B사립대학교 4학년인 사양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인데, 이런 사양에게 '22년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

사양은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 매년 학기당 30만원 가량의 국가장학금을 받다보니 부모님과 본인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 '2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학기당 최대 175만 원까지 대폭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게 된 것이다.

»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 인하(5회, 0.8%p↓)하고, 지원대상 및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선(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다자녀 학생 재학 중 이자 면제, 파산면책 허용 등), 취약청년 대상 상환유예 및 통합채무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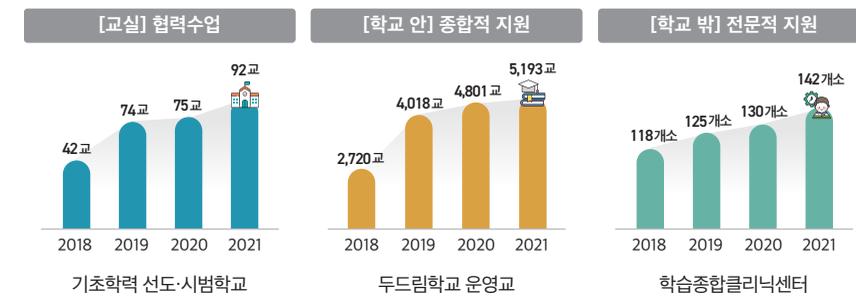


10.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실(협력수업)-학교 안(두드림학교)-학교 밖(학습종합클리닉센터)을 연계하는 학교 안팎의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 ('18→'21) 교실 : 42→92교, 학교 안 : 2,720→5,193교, 학교 밖 : 118→142개소



» 개별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 학년을 확대('18. 초3~중3 → '19. 초1~고1)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진단 및 학습할 수 있는 자율진단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배이스 캠프' 지원 (대상 : 초1~고1, 내용 : 문항 2.7만개, 영상 420개('21년 기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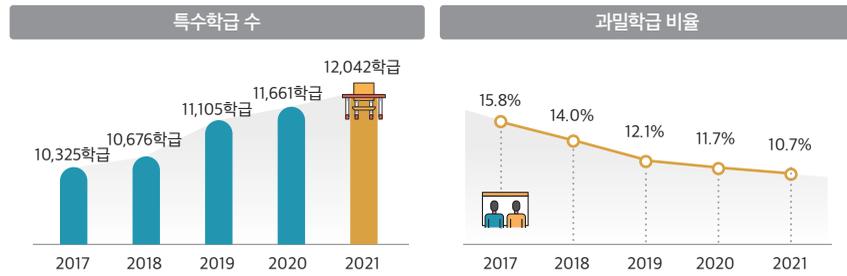
»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21.9)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교육청·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C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군은 반에서 담임 선생님 이외에 함께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더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에 가는 것을 더욱 즐거워했다. 수업 중 집중을 못해 놓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두 분의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질문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히 지도받을 수 있었다. ○군은 두 분의 선생님 덕분에 요즘 학교가 더 좋아졌고, 공부에도 더욱 흥미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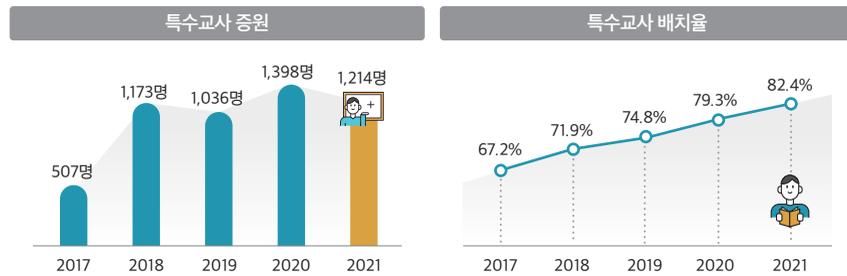
11.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11-1 특수학교·특수교사 확대로 장애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 특수학교 14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1,717학급을 증설하여 장애학생 과밀 학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 매년 1,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증원하여 특수교사 배치율을 높였습니다.



» 장애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학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3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예술), 공주대(직업교육), 한국교원대(체육)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업무협약(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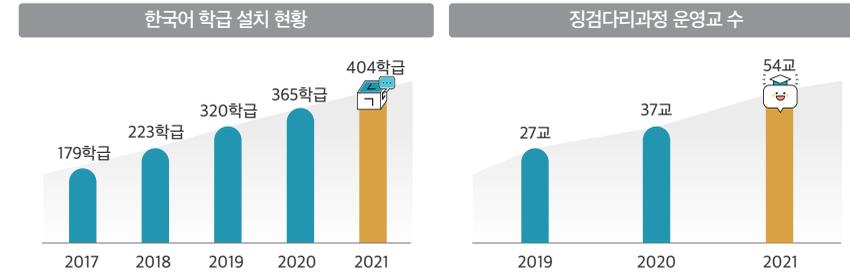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21.12)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은 평소 음악, 미술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21.3월 개교한 예술중점 특수학교인 D학교에서 평소 관심 분야인 피아노나 그림, 만들기 등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D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예술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단순한 기능교육을 넘어 합주와 놀이 등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11-2 다문화·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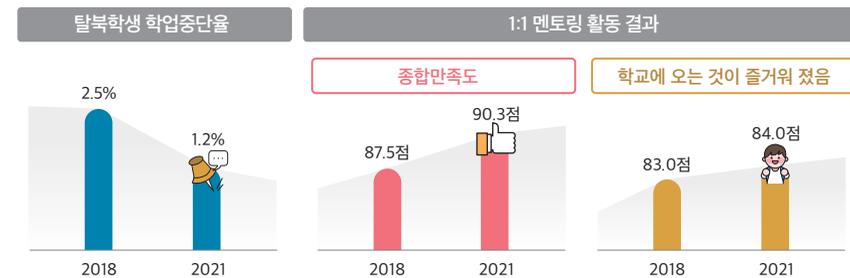
» 중도입국·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의 입국 초기 한국어·문화 집중교육을 위해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학생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해 징검다리과정(19~)을 도입하였습니다.



» 다문화학생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및 17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 등 공교육 진입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탈북학생 1:1 맞춤형 멘토링(전체 학생의 50%이상), 재능계발을 위한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위기학생 긴급지원(돈움지원팀, '21~)을 통해 학교적응 및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타이머에게 재학 중인 탈북학생 1:1 멘토링은 진학보다는 취업에 뜻이 있었으나,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수업진도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시기 멘토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선생님은 어려운 단어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주시고 반복학습을 통해 낯선 개념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자연스레 한국 최고의 기능 명장이라는 꿈이 생겼고, 부단한 노력과 선생님의 지도 하에 졸업할 때에는 7개 국가기술자격증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현재는 원하던 기업에 취직하였고 기능명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3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공교육 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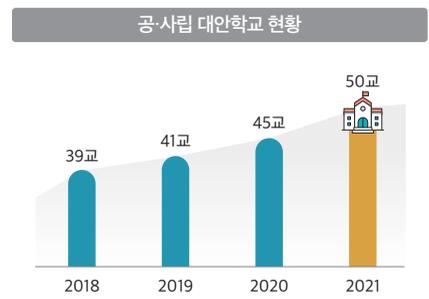
»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18)하고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 학업중단예방 추진계획(20) 및 학업중단숙려제 공통운영기준(20)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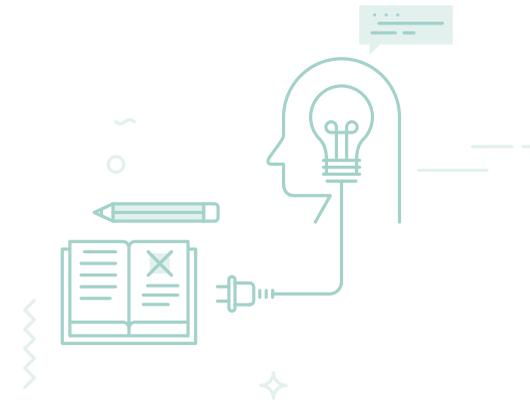
»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16~'21. 5교) 설립과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20)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22.1.13 시행) 하였습니다.

* 대안학교 설립 사전 공모제 추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



»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하였고,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학교 밖 학력 취득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군은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자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서 입원치료를 권고받았다.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러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병원치료를 받고, 태권도 체육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린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경험을 하며 자살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다. 이후 가족 및 친구관계도 회복되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 F대학교 태권도 학과에 합격하였고, 현재에는 태권도 강사로서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당찬 계획도 가지게 되었다.



03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체제개편,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교폭력, 학생자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12. 고교체제개편

고입경쟁을 완화하고 미래 고교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에 집중하는 미래 고교체제로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19.11)

■ 단계적 고교체제개편 추진 경과('17~'21)



- 모든 고교의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19~)**하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25~)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하였습니다.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전형 경쟁률 변화 추이('18~'21)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자사고	1.46 : 1	1.26 : 1	1.31 : 1	1.19 : 1
외고	1.57 : 1	1.49 : 1	1.49 : 1	1.12 : 1
국제고	2.29 : 1	2.37 : 1	1.97 : 1	1.53 : 1

- 자사고 등의 **자발적 조기 전환과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3년간 10억 → 2년간 15억)**하였습니다.

※ 시·도별 「일반고 전환지원 로드맵」을 수립('21.12)하여 지역별·학교별 지원

※ '19년 이후 송문고 포함 총 7개 자사고('20. 4교, '22. 3교) 일반고 전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우수사례: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일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학부모들의 이기심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학교가 아무런 변신도 체재하지 못한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김에 휘둘러서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니면 권력적인 자사고 정책의 위시판 우리 교육,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까?

— 학교의 유형은 중요하지 않았다.

1. 자사고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교

앞서 살펴본 '2016학년도 이후 자사고 학생을 위한 방안'을 통해 우리는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요구하고 나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학교가 자사고로서 차별화된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만약 학교가 그간 자사고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했다면, 기술이나 자습실을 우선 배양해 달라는 식의 수준 낮은 요구 사항이 아니라 '형·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식의 제안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혀 없었다. 결국 당시 학교가 '무늬만 자사고'였을 뿐, 일반고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우수사례 : 서울 미림여고(교육개발 2021-9월호)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더 특색 있는 학교로 바뀌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생 중심 교육'으로 명확히 설정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간에 공감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위해 기존 수능 중심, 논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과정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학생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다.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우수사례

13. 대입 공정성 강화

평가 과정과 선발 결과가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를 개선**하였습니다.

※ 학생부 기재항목 중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은 대입에 미반영하고, 교사추천서 폐지('22학년도),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예정('24학년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변화



■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전형자료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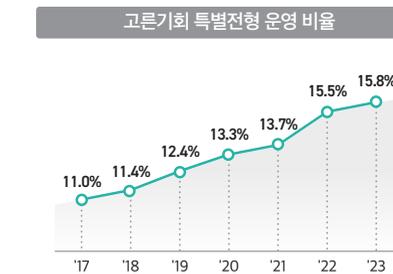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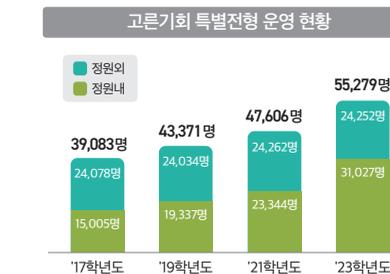
-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확대***하고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고교프로파일 폐지('20), 블라인드 적용범위 확대(면접→서류+면접, '20~)

** 입학사정관 공동교육과정 개발('20), 학생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20)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만학도, 지역인재 등



14. 사학혁신 추진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19.12)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입법과제(총 34개(법률개정 23개, 행정입법 11개)) 추진 실적 : 법률개정과제 82.6%(19개/23개), 행정입법과제 100%(11개/11개)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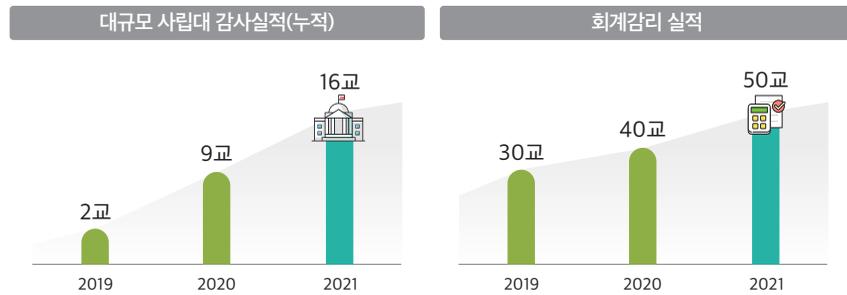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사립학교법」, 「한국사립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통과 7.23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 임의이사 선임요건 명확화
- ▶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실시
- ▶ 학교법인 임원의 경력 및 선임 제한 기간 연장

- ▶ 개교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 중 16개교의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사학기관 회계감리 대상교를 확대하였습니다.



- ▶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의 선도 사례를 제도화하고자 '21년부터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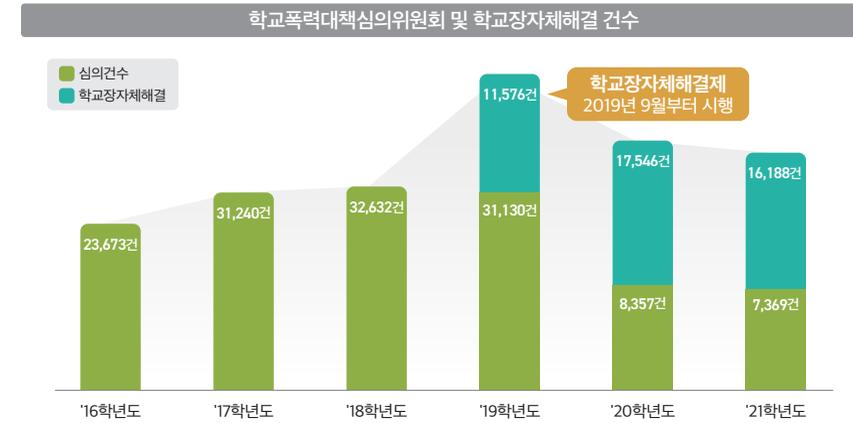
* ('21) 5개교 선정, 총 50억원 지원 / (사학혁신 5개 분야) ①회계의 투명성 확보, ②법인 운영의 책무성, ③법인 운영의 공공성, ④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⑤법인·대학 자체혁신

15. 학교폭력, 학생자살, 성희롱·성폭력 예방

15-1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 ▶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3)하고, 법조인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진정성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 ▶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관여를 통해 화해할 수 있도록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시행('19.9)하였습니다.



A초등학교 학급 카톡방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 중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학생들 간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이슈에 적극 대응하였고, 민·관이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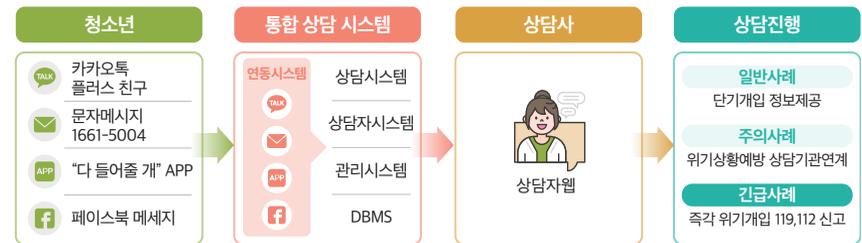
학교는 학교장자체해결제로 사안을 종결하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간에도 상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담임 교사는 반 학생 모두가 피해학생의 상처와 상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단톡방에서 지켜야 할 공동 예의범절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학생들 간 친밀감, 신뢰감이 더 강화되었다.

15-2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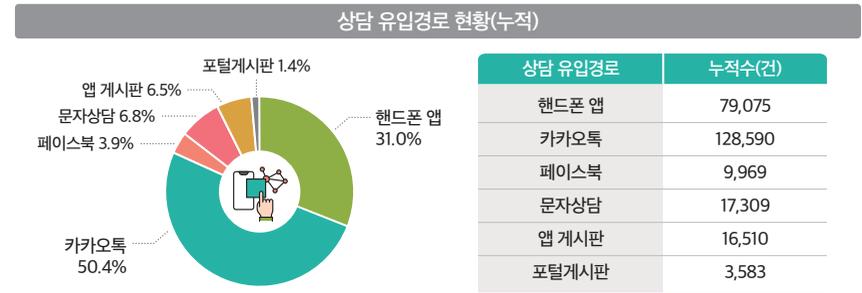
» 학생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고민 상담이 가능한 모바일 문자 상담망을 구축·운영('18.9~)하였습니다.

※ '다들어줄게' APP, 카카오톡채널, 페이스북, SMS(1661-5004) 24시간 운영

상담망 운영 체계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및 문자상담 등 다양한 상담경로를 활용하여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위기에 개입하였습니다.



»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하여 교사 생명지킴이 교육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학생자살예방 전문요원 양성프로그램 개요('21~)

- 목적** 학생의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사 양성
- 교육자료**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보고듣고 말하기 v2.0)

참가자용 워크북

※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전문인력(강사요원) 양성 : 68명('21년)
강사요원을 통한 교육청별 교원 게이트키퍼 교육 : 8,069명('21년)

「학생은 위기문자 상담망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였다. 특히 전에도 입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고백하면서, 일기장에는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하였다. 또, 자해 충동이 너무 심해 머릿속에는 자해 생각이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생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속히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였다. 의료상의 처치를 마친 후, 「학생이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역 자살상담센터로 연계하였다.

15-3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감축*하여 학생선수의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학업결손 보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 ('19) 64~65일 → ('22) 초 5일, 중 12일, 고 25일

** e-school 학습자 수/과목 수: ('17) 40,128명/154개 → ('21) 47,310명/196개

» 학생선수 폭력 사안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지도자) 폭력/방조·묵인: 견책~해고, 성희롱: 정직~해고, 성폭행: 해고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처분에 따른 선수등록·대회 참가제한 기준 신설

학교폭력예방법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기간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3개월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6개월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12개월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년

15-4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여,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 등

- 실태조사 실시**
 - 중·고등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대학 내 성고충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 신고·대응체계 강화**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 10개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및 시간차리 매뉴얼을 개정·배포
- 징계 내실화**
 -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교원 징계 양형 준용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이행
 - 국공립교원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지하여 알 권리 보장
- 예방교육 강화**
 - 예비·현직 교원 교육·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교육자료 보급
 - 국립대학 양성평등실적 평가 시, 예방교육실적 반영
- 양성평등문화 확산**
 - 학교 양성평등 진단기준 개정 및 보급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양성
 - 양성평등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

» 「교육기본법」을 개정('21.9)하여 양성평등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보급, 연구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04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토대 마련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내용을 강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도 양성하였습니다.



1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과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을 스마트교실과 친환경공간으로 구성된 미래학교로 전환(총 18.5조원 소요)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21년 702동(484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조감도 사업안내서

- 대국민 공모전,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 소통 행사와 홍보를 통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서울역 홍보영상 송출(21.9)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21.9.14) 찾아가는 현장간담회(21.11.10)

-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약하여 사전기획, 설계 전문가풀 지원 등 민·관·학 협력 체제를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중앙지원협의체를 출범 하였습니다.

※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교육) 한국교육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건축분야 업무협약식(21.4) 교육분야 업무협약식(21.6) 중앙지원협의체 출범(21.5)

A고등학교 2학년인 N군은 비어있는 4층 휴메이스 공간 일부를 만드는 도전에 참여하였다.

학교 홍보팀에 들어가서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SNS에 신설 페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다. 가장 많은 의견은 동아리 같은 소규모 그룹 스터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연을 볼 수 있는 창가 쪽을 학생 휴게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들이 TF팀을 통해 설계에 반영되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어 미래학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뿌듯하고, 요즘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

17.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준비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마련(21.11)하였습니다.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포럼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학생·학부모 콘서트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비전 및 개정 중점 방향



- 이를 위해, ①미래변화에 대응한 기초소양 함양과 ②학교현장의 자율적 혁신, ③학습자 맞춤형 교육, ④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구성·확정(22.하)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추진과제



고등학생 N군은 온·오프라인 연계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에 참여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대담을 듣고, 온라인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N군은 실제 학교생활의 경험을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교육과 수업·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교육과정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고, 특히 토의에서 제안한 의견이 실제 개정 과제에 포함된 것을 보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18.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18-1 고등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현장 안착을 위해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제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8~) 연구·선도학교 운영 → ('20) 마이스터고 도입 →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단계적 준비 → ('25) 전체 고교 도입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 마련('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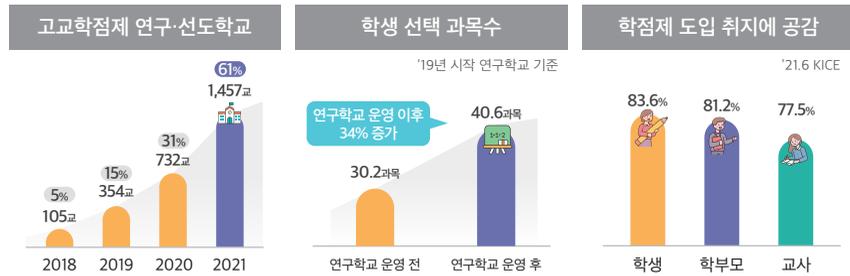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21.2)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 발표('21.8)

» 전체 고교의 과반 수 이상('21. 61.5%)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습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현장의 공감대도 커졌습니다.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지원하고, 학점제형 공간도 구축하였습니다.

※ 756교(전체 일반계고의 45%)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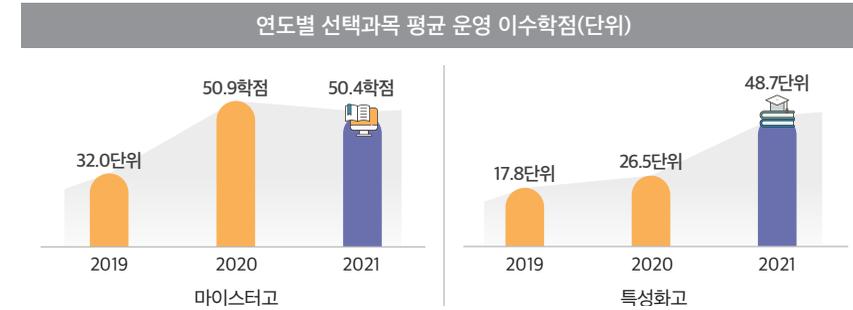
언어에 관심이 많던 고등학생 C군은 원래 국제고 진학이 목표였지만, 집 근처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B학교가 있어 해당 학교에 입학했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고등학교 생활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마치 미니 대학 같았다.

외국어로 글을 쓰는 직업을 꿈꾸는 C군은 2학년 동안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들었고 3학년 때는 스페인어와 교육학을 들을 예정이다. 사실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학교 수업을 통해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차곡차곡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렌다.

18-2 전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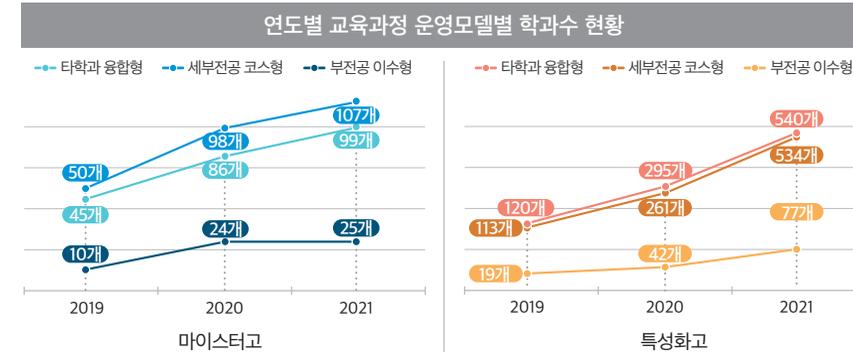
»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이 진로계획에 따라 스스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 :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



» 학교의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취업 희망에 따라 융합형, 세부전공, 부전공 등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다양화했습니다.

※ (마이스터고) 운영모델 운영 안정화, (특성화고) 운영모델 운영 증가



»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결과 수업만족도가 향상되고 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습니다.”
- 세경고등학교

“재학 중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탐색·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이 희망하는 수업을 운영하거나 부전공 과정을 확대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세부전공 코스제, 교과교실제 이동수업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와 취업을 모두 향상되었고, 학점제가 거듭될수록 학생의 과목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삼일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사례집, 2021)

C로봇고에 다니는 B학생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관심이 있었지만 입학할 때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에서 부전공 제도가 운영되면서, 포기했던 분야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진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19. 직업계고 혁신 및 고졸취업 지원 강화

19-1 직업계고의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개편('17~'21, 650개)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확대('17. 48교 → '21. 54교) 및 정부부처와 연계한 직업계고 지원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경기자동차과학교 미래자동차과

정부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사업



» 직업계고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고졸인재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21년 250교), 직업교육 혁신지구('21년 5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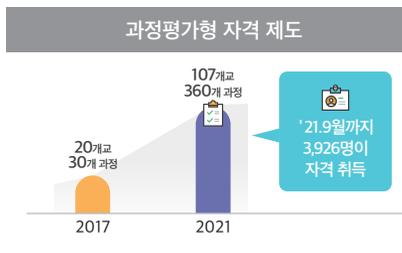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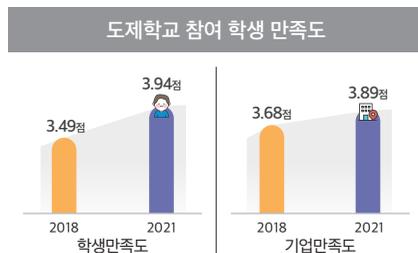
2021년 직업교육 혁신지구(5개) 현황

목표	우수사례
가고 싶은 학교	A공고 지역주민 대상 농기계정비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학교 인식 개선
머물고 싶은 학교	B상고 취업연계 1교사 1핵심 동아리운영,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및 학업중단 학생 감소
실력을 키우는 학교	C상고 호텔취업을 위한 제2외국어 신규 교과 개설 및 자격증 맞춤형 수업 운영
꿈을 키우는 학교	D공고 과학·미술·건축·기계 융합프로젝트로 학생들이 노후화된 건물의 휴게공간 구축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하여 자격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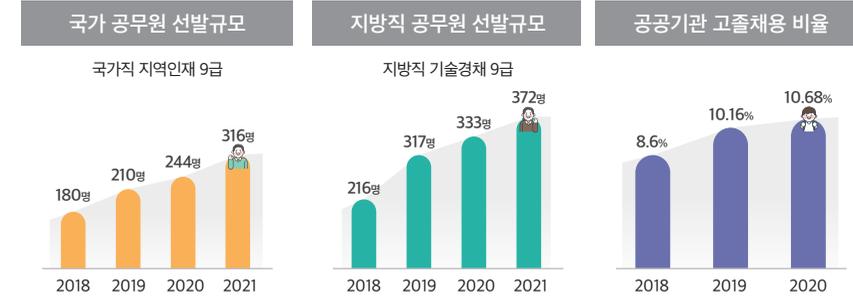


직업계고 교사는 기존에는 고졸 취업이 학교와 교육청만의 업무라는 인식이 있어 힘들었는데,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인재이고 이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조금씩 확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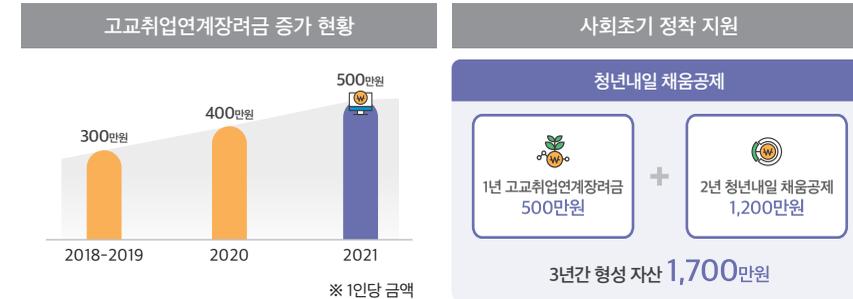
OO지역의 학생은 도제학교 덕분에 세무사라는 확실한 꿈이 생겼고, 세무법인인 도제기업에서 교육받으며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입학병행하면서 세무 업무에 밀착이 될 수 있는 전산회계1급 등의 기본적인 세무 업무 관련 자격증과 전산업무 자격증들을 취득하였다.

19-2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 정착을 위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 직업계고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의 사회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300만원→500만원)하였습니다.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20.6~), 고졸전용 취업 플랫폼 '고졸만JOB' 개설('21.9~) 등 고졸 일자리 발굴과 고졸인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고졸 일자리 발굴

- 고졸 기술인재 취업 수요발굴, 현장실습 기회 제공 협력 (28개 기관 958건)
- 대기업 등의 정규직,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확대 (252건)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CJ CGV, 은행(NH농협 등), KT&G 등

고졸인재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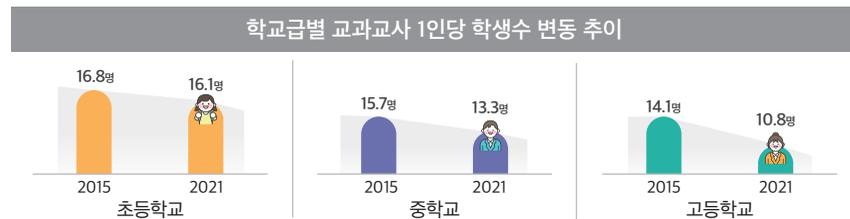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 명칭 공모전
- 취업지원 정보 안내
- 언론사(한경, 매경)와 협업하여 기업-고졸인재 채용 상담·면접 실시
- 고졸 채용정보 제공·매칭 플랫폼 홍보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다양한 홍보매체(SNS 등)로 고졸 지원 정책 및 제도 소개

20. 미래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

20-1 미래에 대비하여 교원수급을 관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정적으로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7~'22 연도별 교사 증원 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교사 증원	3,000명	2,904명	3,830명	4,195명	3,476명	1,986명	19,391명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6청)

- (경기, 전남)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 (충북, 제주) 교육지원청 행정체제 개선으로 학교자치 지원
- (충남, 경남)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맞춤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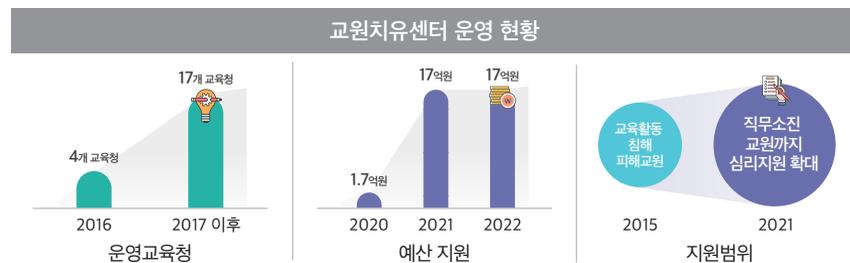
시도별 학교업무경감 사업 자율 설정(11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력채용 시스템 구축
- (인천, 대전) 학교지원, 교무지원 전담팀 내실화 운영
-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강화

울산 D초교는 기간제교원을 활용해 학급을 증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7.6명에서 20.8명으로 낮추고, 학생 맞춤형 수업 및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였다.

E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씨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산할 때 늘 증빙서류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F지원청에서 시청과 협력하여 정산서류 간소화를 추진 해주어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 모두 큰 어려움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지원청과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이었다.

▶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교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20-2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원양성을 위해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디지털 혁명, 학령인구 감소, 포용사회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한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교원양성개편 관련 의견수렴 경과

- '20.8~12월' 국가교육회의 주관 사회적 협의
 - *핵심당사자(32명) 집중 속의, 검토그룹(300명) 온라인 토론회, 여론조사 등
 - 권역별 경청회(8~9월) → 핵심당사자 집중속의(9~12월) → 1~2차 의제 선정 → 3~4차 쟁점 토론 → 5~6차 협의문 검토 → 협의문 도출(12월)
 - 여론조사(10월) → 검토그룹(국민 300명) 온라인 속의 → 사전학습(10~11월) → 토론/설문조사(10~11월)
- '21.5~10월'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구성·논의
 -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사대생,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 24명 구성
- '21.7~9월'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총4회)
 - * (1차~3차) 주제별 토론회, (4차) 공청회
- 수시 유관단체 등 간담회 및 의견수렴
 - *교육감협의회,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사범대학장협의회, 교육대학원장협의회, 직업교육학회, 한국정보교육학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원단체 등

▶ 전 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미래형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① 학교/교실 이해 제고, ② 원격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요구 등 미래 변화 대응, ③ 교육실습 내실화, ④ 인권·성인지 감수성, 적·인성 검증, 교육봉사 등 기본소양 함양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추진과제

구분	목적	사회적 협의	과제
교원양성 교육과정	현장성 제고	현장참여 교육과정,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	실습 학기제 도입 확대
	다교과 역량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융합, 원격교육 등 미래 적합 유연한 대응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연계) 융합전공 취득
중등교원 양성체제	질 제고·양성 규모 감축	양성 경로를 정비하여 양성교육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축소 필요	양성경로 정비 (사범대/교직과정/교육대학원별 목적·기능 특화)
초등교원 양성체제	교육과정 다양성	초·중등 연계 교육 등을 위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방안 모색	교대 이수과목 조정·핵심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다양화

이번에 교사로 신규임용된 ○선생님은 교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걱정과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교원양성단계부터 학교현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이 확대된다면 후배 교사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도 교육실습생을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21.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21-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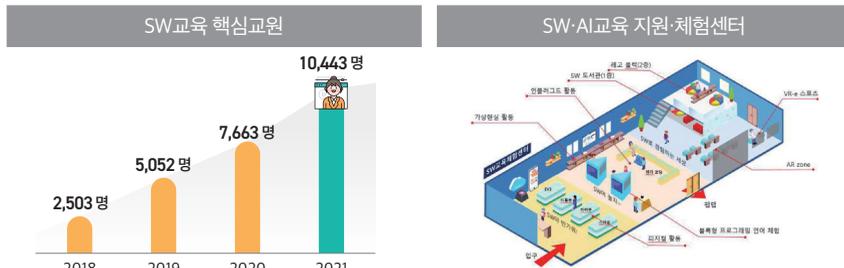
» 초·중학교 SW 교육을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지역별 선도·중심학교를 중심으로 SW·AI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21) 학교급별 AI교육 내용기준 안내 및 보조교재 개발·보급(초2종, 중1종, 고2종)
[SW 선도학교] ('17) 1,200교 → ('18) 1,641교 → ('19) 1,834교 → ('20) 2,011교
[AI 선도학교] ('20) 247교 → ('21) 566교 / [AI 중심교] ('20) 34교 → ('21) 51교



» SW·AI 교육을 위한 핵심 교원을 1만명 이상 양성('18~'21) 하고, SW·AI 교육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AI융합 대학원 과정] ('20) 1,006명 → ('21) 2,052명 / ('20~'24) 연간 1,000명 육성
[SW교육체험센터] ('18) 2개 시도 구축 → ('21) 14개 시도 구축 완료



OO지역 G학교에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이 구축되었다. 정보교육실은 학생들의 협력 학습이 용이하게끔 가변형 좌석으로 설계되었다. 초등학생 수준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졌고,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난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노트북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수업에 비해 월등히 좋았더라면 만족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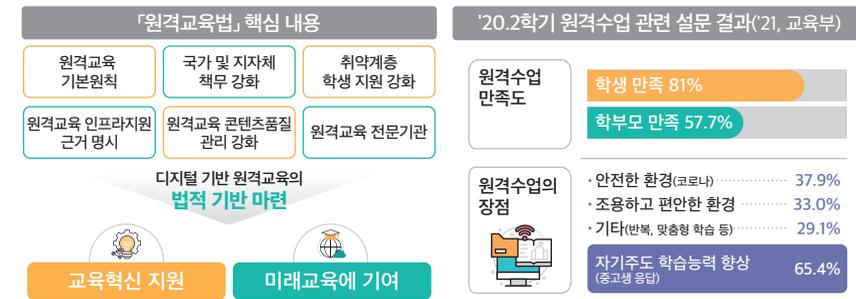
» 다양한 학생·학부모 체험 탐구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SW·AI 교육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였습니다.

※ [코딩파티] ('20) 100만명 → ('21) 141만명 / [페스티벌] ('20) 20.6만명 → ('21) 26.1만명



21-2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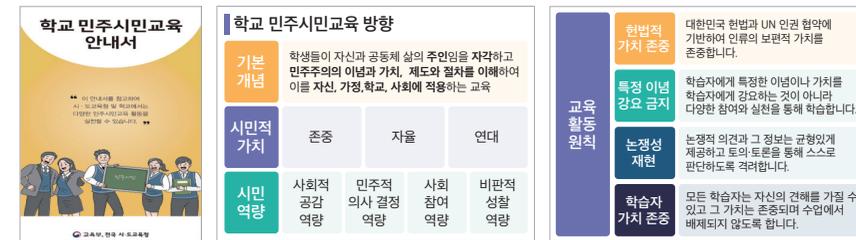
»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을 제정('21.9)하였습니다.



21-3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개념, 가치, 역량, 교육활동 원칙 등)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19) 민주시민교육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 ('19) 정책공론화(5회) → ('20) 전문가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학교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 ('21.1) 안내서 보급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17.12)하고, 원격교육 상황에서 차질 없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결합 자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21-4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반영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탄소중립학교를 선정·지원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업무협약



관계기관 환경공동선언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즐겁게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어 재미있었다.”

“직접 찾아가 보면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뜻 설명을 읽어 보면서 알아 가는 게 좋았다.”

- 메타버스 '제페토' 활용 환경방학 탐구활동 참여 학생 대상 설문조사



- » 관계부처, 교육청과 합동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마련('21.12.)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 대전환, ②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 조성, ③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 확립, ④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 마련



2021 베스트 교육정책 선정

21-5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 「원격교육법」 제정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미리네)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 »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리네’를 통해 교재 등 교육자료, 유관 연구자료 및 각종 영상 자료를 공유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미리네 내 교육자료 29종(교원·학생용), 미연구자료 14종, 영상자료 33건, 학습주제사전 및 각종 미디어교육 동향·정보 등 탑재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

- »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형 미디어교육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 학부모 토크콘서트(2회), 학생정책참여단(35팀, '21.9~), 교사 현장지원단(35명, '21.4~)

코로나로 인해 등교에 제한을 받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늘어서 이대로 아이들이 관찰을까 고민을 했는데, 디지털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내용과 가정에서 미디어교육 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교육주제에 대해 이번 행사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자녀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1.8. 충남 미디어교육 학부모토크 콘서트 학부모 의견 중





05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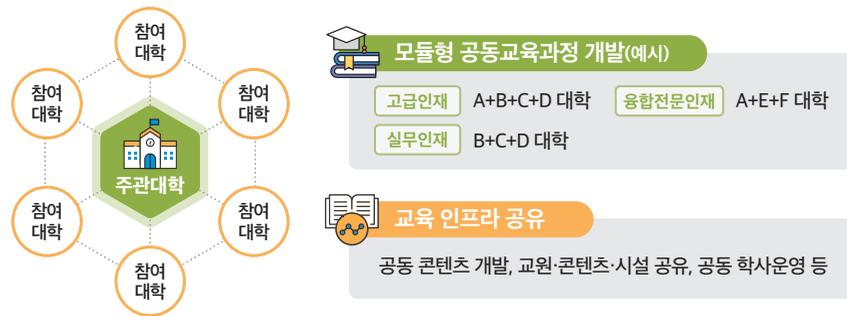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범부처 간의
공유와 협력의 패러다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체질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2. 대학 간 공유·연계를 통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22-1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새로운 공유·협력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 ▶ 각 대학이 가진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추진(21~)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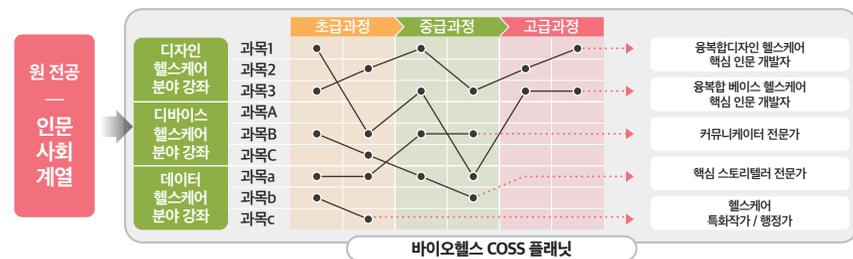


- ▶ 인재양성이 시급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해 대학 간 협력과 관계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년 선정 신기술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신기술분야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 전문대학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빅데이터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자대, 전북대, 한동대, 경기과학기술대*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실감미디어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지능형로봇	한양대(ERICA)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영진전문대*
에너지신산업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

바이오헬스 분야 컨소시엄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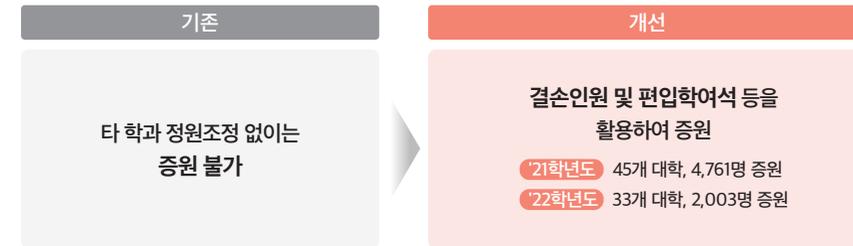


대전 A대학 사회복지학과 3학년 에 재학 중인 K씨는 이번 여름 학기에 서울 B대학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론'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다.

A대학과 B대학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바이오헬스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전공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K씨는 졸업 후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학기제를 활용해 2학기 동안 '디바이스 헬스케어' 분야 강좌를 집중 수강하고 복수전공을 취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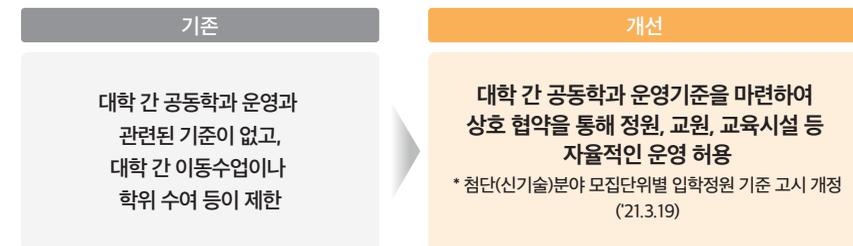
22-2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인재양성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 대학들이 우수한 교원·교육시설 등을 상호 공유하여 첨단분야 공동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표사례 : 전남대-순천대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22학년도~)



- ▶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더욱 촉진하고자 대학에 적용되던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확보율 100% 조건만 충족 시 첨단분야 대학원 증원 허용 결손인원 등 활용을 통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교지확보율 100% 조건만 충족 시 첨단분야 캠퍼스 이전 가능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 유보하고 추후 필요시에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도입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활용 지원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 허용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설립인가 시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능 캠퍼스 위치변경 시 교사교지 소유요건 및 기준면적 산출 기준 완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C대학은 최근 주요 신기술로 각광받으며 많은 학생이 진로로 삼고 싶어 하는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학생정원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다른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는 인공지능전공 학생 정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첨단분야 정원 관련 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되어, 편입학여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전공의 정원을 100명 증원할 수 있었다.

23. 지역-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인재 양성

23-1 지역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지역대학·지자체 중심의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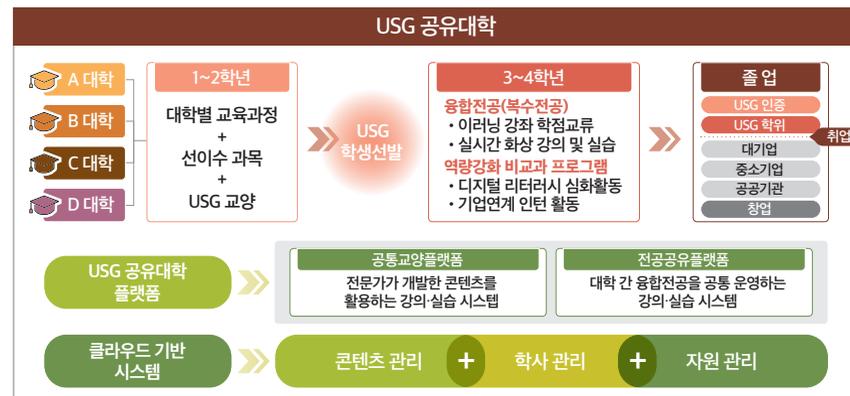
※ ('20년) 3개 플랫폼(4개시도) → ('21년) 4개 플랫폼(8개시도) → ('22년) 6개 플랫폼

2021년 지역혁신 플랫폼 현황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	핵심분야
광주·전남	전남대, 목포대	에너지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대전·세종·충남	충남대, 공주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경남대, 창원대, 울산대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
충북	충북대, 한국교통대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 각 대학의 강점을 결집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공유대학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표사례 : USG공유대학, iU-GJ, 오송 Bio-PRIDE, DSC 공유대학 등



-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도입·지정('22~)하였습니다.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부여 (광주·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기준 완화

경남 D대학 3학년 L씨는 USG(Univeristy System of Gyeongnam) 공유대학에서 빅데이터 전문가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USG는 교육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중 하나로 경남도내 13개 대학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유대학이다. USG에서는 1·2학년 때 공통교양을 수강한 후 3·4학년에 여러 대학의 융합전공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L씨는 현재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으나, USG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빅데이터 분야를 복수전공하기로 결정하였다.

23-2 지방대학의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지역과 지방대학이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여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3)을 수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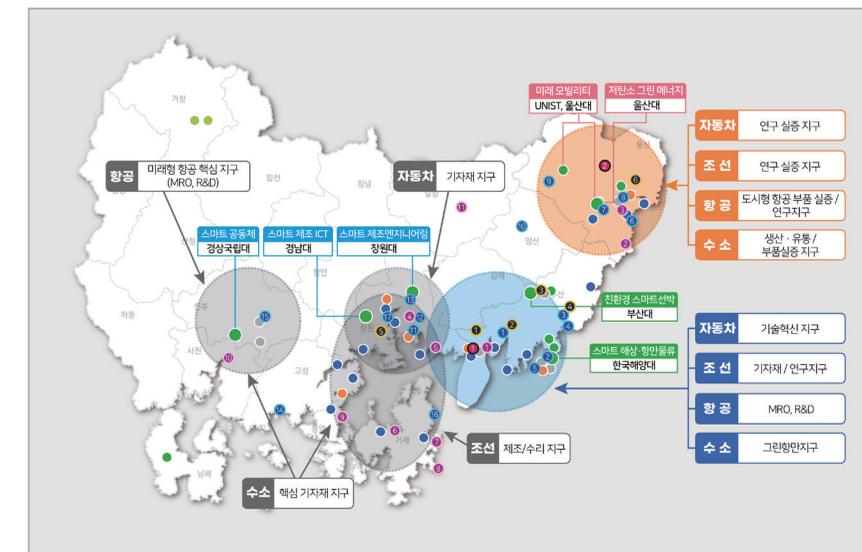
※ 10개 중앙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 합동

-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역인재의 요건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21.3)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	30% (강원·제주15%)	40% (강원·제주20%)
지역인재 요건 강화 ('22학년도 중학교 입학 학생부터 적용)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① 비수도권 중학교 및 대학 소재 지역의 고교 전과정(입학~졸업) 이수 ② 기간 내 학생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
지역 저소득층 학생 지역대학 진학 기회 확대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 저소득층 의무선발 신설

-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 지원전략'을 마련('21.10)하고, 그 선도모델로서 부울경 지역의 인재양성분야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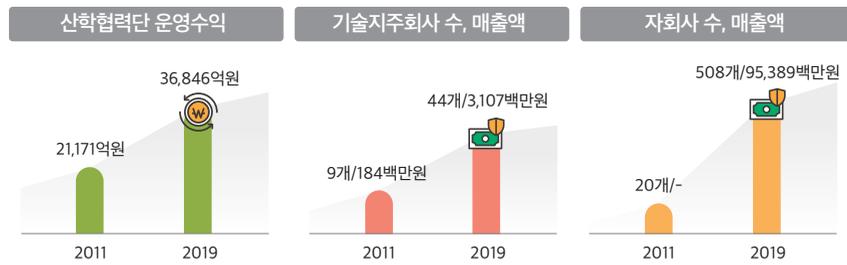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주요 산업군에 따른 대학 특성화 방향

24. 산업-대학 간 협력 강화

24-1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산업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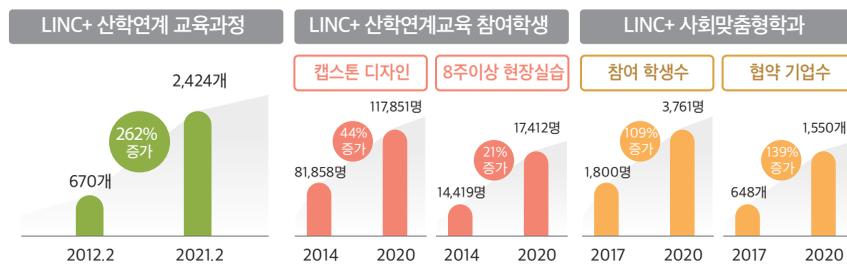
»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조직·제도·문화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대학이 기술사업화, 민간투자 등 산학협력 성과를 통해 등록금 외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맞춤형 학과*를 운영하여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 학생선발→교육과정 구성→운영→채용까지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취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



» LINC+사업단이 운영하는 기업협업센터(ICC)에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자문이나 장비활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LINC 사업 참여대학 기업지원 실적

	산업체 공동연구		기술이전		공동활용장비 수익금	가족회사 수
	건수	연구비	건수	수입료		
2014	3,510건	1,240억원	2,000건	259억원	323.3억원	48,992개
2020	4,697건	2,057억원	3,148건	392억원	430.7억원	70,777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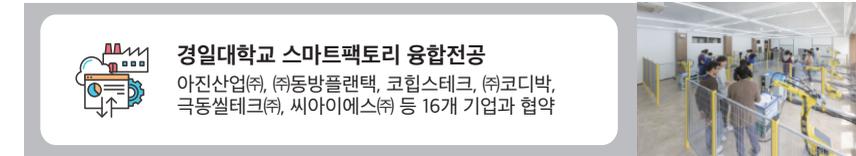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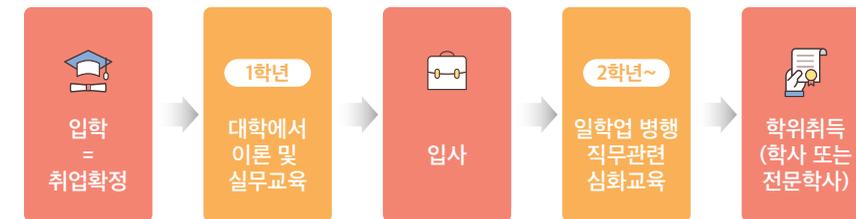
평소 창업에 관심이 큰 E대 학 씨는 대학이 LINC+사업을 통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교양 과목을 찾아 수강하고, 학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웠다. 또한, 창업동아리에 가입하여 창업활동 수행에 필요한 세무, 회계 등 경영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었으며, 창업 공간과 시설지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씨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 스타트업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졸업 전에 학생 스타트업 창업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24-2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 새로운 형태의 계약학과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운영현황('21년): 8개 대학 28개 학과, 5개 전문대학 15개 학과
→ 입학과 동시에 취업 확정 및 조기졸업 가능, 국가장학금·기업 지원 수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방식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전부개정('21.7.6.)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주요내용

운영기준 표준화	운영 체계화	학생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학기제를 2개 (표준/자율)로 유형화 - 표준 운영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요건(수업, 표준 운영절차 및 양식 준수) - 전국단위 현장실습 지원기구(KACE)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의무화 - 산업재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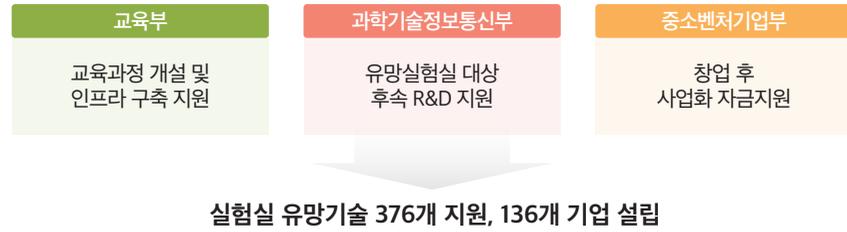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F대학 '스마트ICT융합전공'에 입학한 대학생 씨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씨는 F대학 입학과 함께 G기업 취업이 결정되어 취업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일학년 병행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타 학과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사학위를 취득하지만 졸업은 1년 빠르게 할 수 있어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24-3 대학 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및 실전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로 맞춤형 교육과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학생 창업가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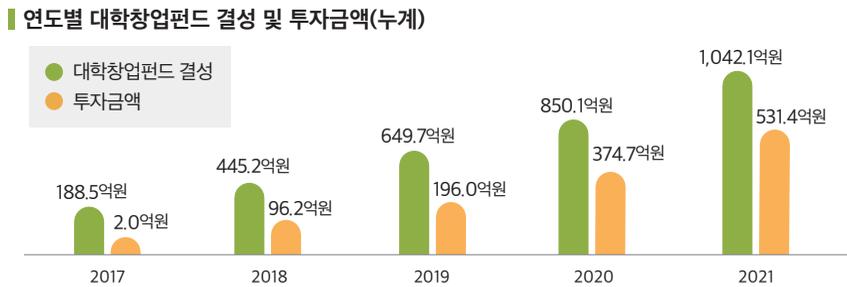


한양대 ㈜솔리비스

차세대 전고체 전지용 고이온전도성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

- ✓ 5,500백만원(Series A) 투자유치
- ✓ 세계 최고 성능의 고체전해질 양산기술

»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5년간 1,042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206개 기업에 53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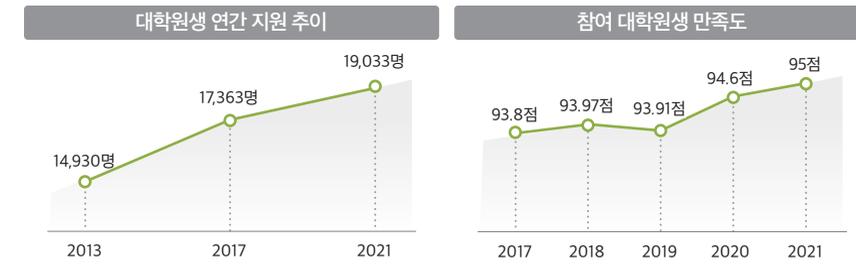
H뷰티회사 대표 씨는 대학생 시절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여타 대회와 달리 교육과 멘토링이 함께 제공되어 창업 초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후속 지원프로그램 덕분에 해외시장 조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50여개 나라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뷰티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5. 학술진흥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25-1 석·박사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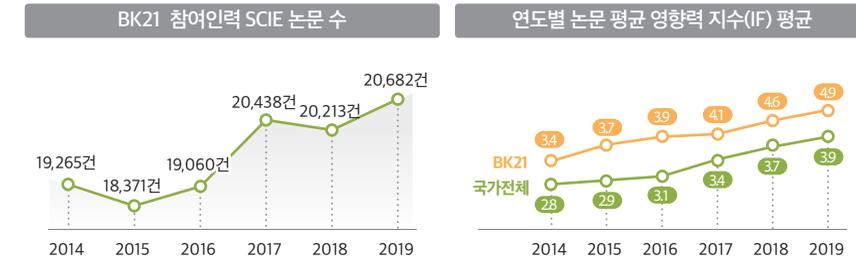
»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연간 1만 9천여 명의 고급인재를 양성했습니다.

※ BK21 플러스 이후('13~'21) 수혜학생 누적 155,223명



» 연구 성과평가를 정량 중심에서 질 중심의 성과평가로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실질적인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 BK21 사업 참여 연구자의 논문의 평균 영향력 지수(IF)는 매년 국가 전체 R&D 성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대학본부 중심의 대학원 제도 혁신으로 국내 대학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4단계 BK21('20.9.~) 사업에서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 원)하여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연구 내실화 지원(20개교)



대학원생인 씨는 연구 중인 학문분야의 특성상 정량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나, BK21 지원 덕분에 연구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었다. 또한 BK21 지원으로 국제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현지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고 세계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씨는 BK21 사업이 연구자로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25-2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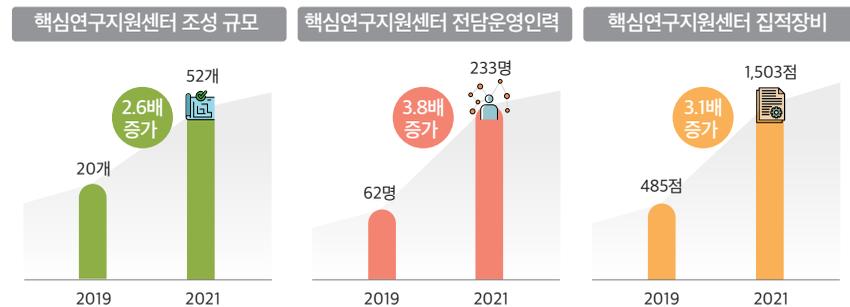
»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며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분야별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여, 대학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신진 연구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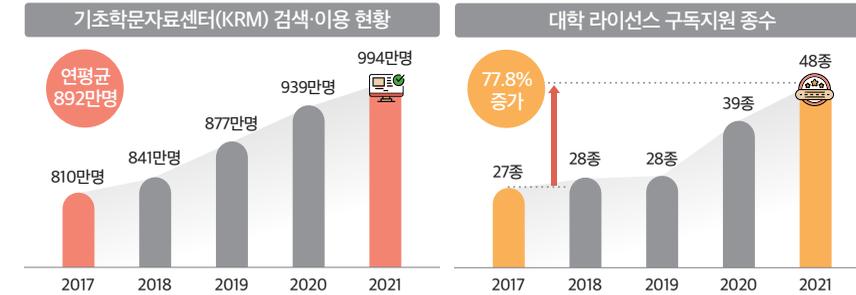
» 대학 핵심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전담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시설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전임 연구자 사시는 생계를 위해 대학들을 돌아다니며 많은 수의 강의를 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학문후속세대들을 대상으로 5년간 연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고 싶은 연구를 맘껏 하면서, 20년간의 시간강사 경력을 살려 연구와 강의 분야 모두에서 인정받는 연구교수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5-3 학술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학술활동 성과를 사회에 공유·확산하였습니다.

» 학술활동 성과 DB를 구축하고, 학술지 구독권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인문주간 등 시민들과의 연구 성과 공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학술연구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윤리 전담 조직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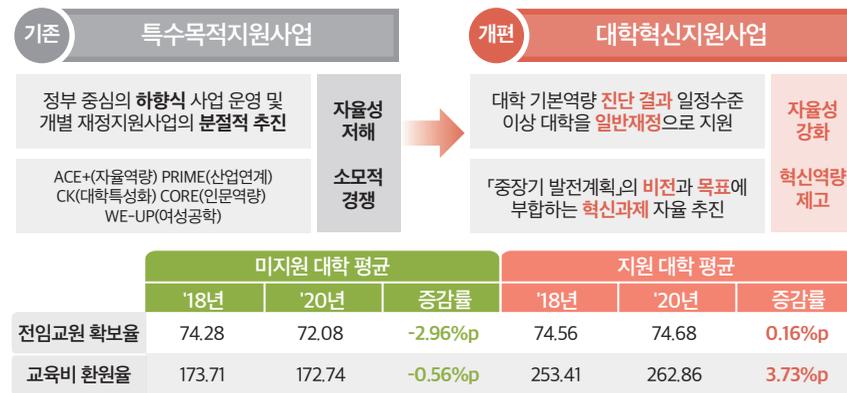
* 연구윤리 교육,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제재, 연구비 집행관리 및 정밀정산 등 연구수행 전 과정 관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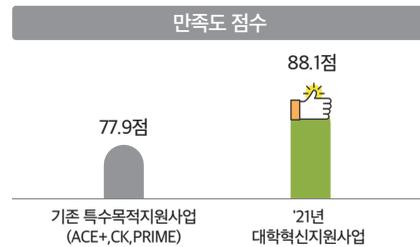
26. 대학 자율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등 지원

26-1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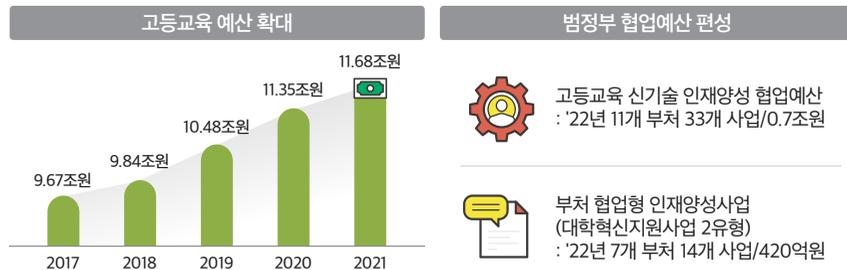
»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각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대학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 교육여건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안정적 일반재정지원으로 대학이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학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범정부 협업예산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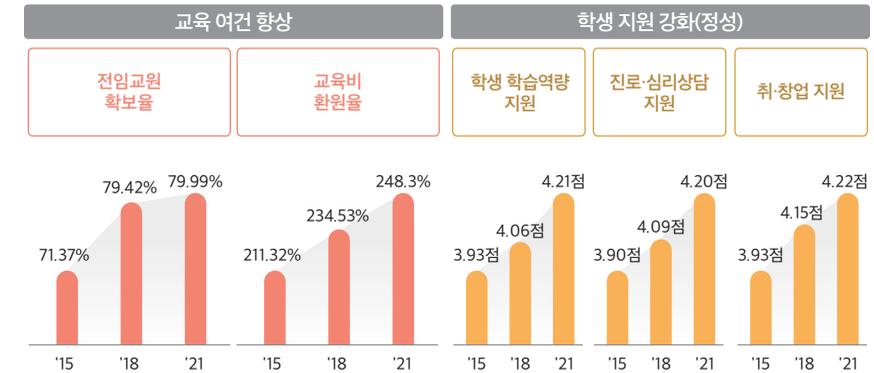
고등교육 신기술 인재양성 협업예산 : '22년 11개 부처 33개 사업/0.7조원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2유형) : '22년 7개 부처 14개 사업/420억원

26-2 대학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각 대학의 여건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자율 혁신과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대책 현황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1.5),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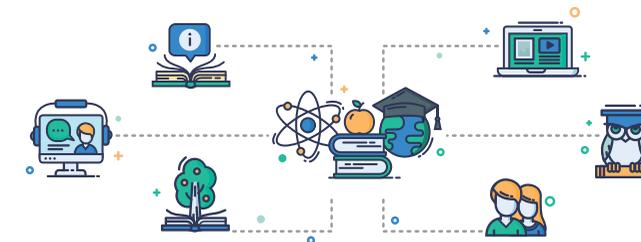
» 자율혁신대학은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며, 적정 규모화 실적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대학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 충원율을 고려하여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

» 한계사학에 대해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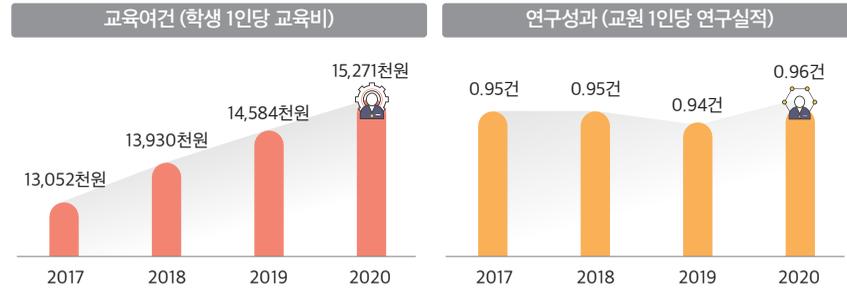
※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 신설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22.1 시행)

대학 유형	정책방향
자율혁신대학	-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등 체계적 관리 제도화 - 신속한 청산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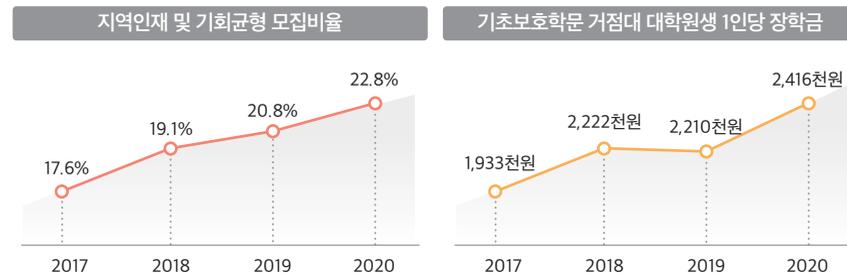


26-3 국립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기초보호학문 육성, 기회균형 선발을 통해 국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과 동반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공동교육혁신센터 등을 통해 국립대학 간,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활성화되었습니다.

Chungcheong Higher Education Compact(CHEC)
: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충청권 8개 국립대학이 공동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자원과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자원공유시스템을 통해 대학 간 학점교류 온라인화를 추진한 사례

27. 전문대학 혁신 지원

27-1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 신산업에 걸맞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육성을 위해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때에 참여 가능

'21년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선정대학

대학(협력대학)	참여분야
대림대	· 지식기반 신산업(자동차공학과 등 5개 과정)
동양미래대(연성대)	· 클라우드 컴퓨팅, 실내건축 전시 기획자,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동의과학대(동주대)	·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영진전문대	· 신산업연계 초정밀금형기술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 실감 모빌리티 융합기술

»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21.3.23.)하여 전문대학에 전문 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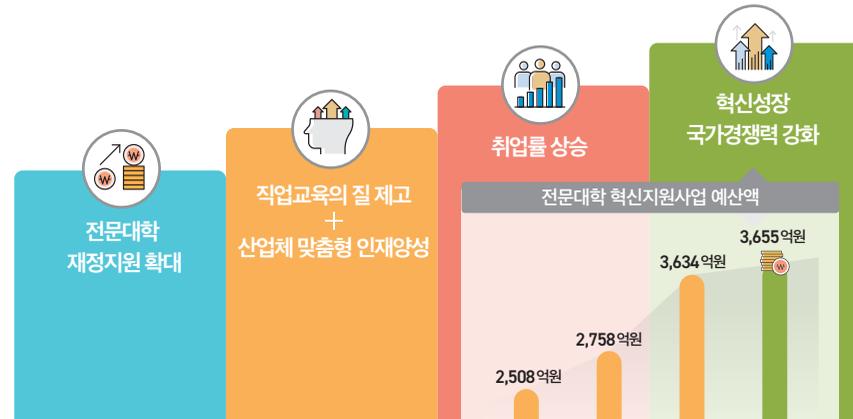
- 교육내용**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
- 학위수여** 기업 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입학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

졸업생들의 취업률 하락세에 대한 원인을 찾던 전문대학은 최근 기업 인사담당 관계자에게 요즘 졸업생 중에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 채용과 실제 현장 투입이 어렵다는 걱정을 들었다. 이에 전문대학은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교원을 채용하고, 인근 직업계고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교육과정을 직무중심으로 개편하여 마이스터대 운영 준비를 마쳤다. 지역사회 내 기업들에서도 전문대학의 고숙련전문인재 육성전략에 대한 반응이 좋아 마이스터대 첫 졸업생 배출이 기대된다.

27-2 전문대학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우수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 전문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9~'21)'으로 재정 지원사업을 개편·확대하여, 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대학 졸업자 취업률 : ('17) 71.2% → ('18) 72.3% → ('19) 72.9%



» 코로나19로 학습·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등을 지원(3만명, 70만원 한도)했습니다.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미술심리상담사 1급 양성과정 운영사례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미술심리상담사 1급 양성과정 운영

- 사회복지과 졸업 예정자 14명 대상으로 미술심리상담사 1급 양성과정 운영
- 미술심리상담 이론뿐만 아닌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대상 치료기법과 심리개입방법 학습

올해 인천 J전문대학을 졸업한 ○씨는 정부의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취업준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습 등 수업에 아쉬움이 있었고 졸업 후 취업 기회도 많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받아 전부터 희망하던 정보처리산업기사 공부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느낌이다.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전략 및 선도 산업 등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신산업 9개 분야 12개교 120억원(교당 10억원) 지원('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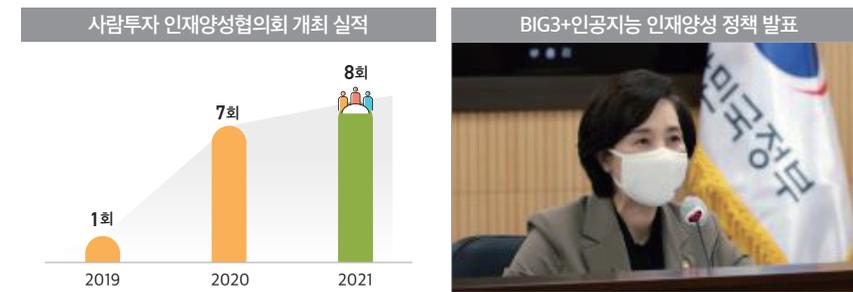


28.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28-1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뛰어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및 성과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 신산업분야 성장에 대응해 'BIG3+인공지능 등 인재양성정책' 발표('21.4)



» '21년 11월에는 정부의 인재양성정책을 총망라하여, 청년 및 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청년과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 → 교육훈련 → 취업준비 원스톱 프로그램(We-meet) 도입 •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강화 • 민간주도 디지털 훈련(K-Digital Training)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 직업계고 AP제도,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등 도입 • 고교AI 관련 과목 및 대학생 AI·SW관련 교양필수과목 이수 확대 	재직자와 성인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자영업자 대상 노동전환 지원 확대 • 전직 위기 재직자를 지원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 활성화 • 성인학습자 배우처 활용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온라인 기반 '스마트 혁신리닝 플랫폼' 구축 • 개인맞춤형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K-MOOC) 구축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정 ※온라인비대면 교육 수요 반영 교과교재요건 완화 등 • 첨단분야 학부 및 대학원 정원 확대 추진 •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도입 ※학사(3.5년, 일반학과)+석사(1.5년, SW·AI) • 학습자 중심 전공 설계가 가능한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양성 우수대학 선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등 AI·SW분야 훈련 지원 • 대학원 수준 산학연 협력강화 및 재직자 석·박사 과정 지원 • 현장실습 매칭 플랫폼을 통한 대학-기업 연계 •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지역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

- ### 정부
-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등 부처협업체간 협력강화
 -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범부처 인재양성 계획 마련
 - 분야·사업수혜자별 인재양성사업 정보 제공
 - 개인 학습이력관리 체계 도입, 인력수급전망 전달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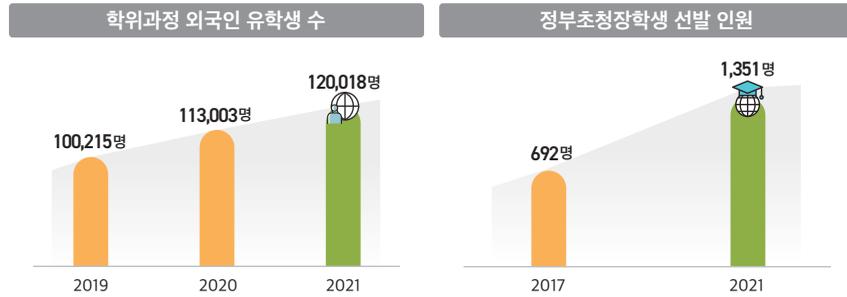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우리 사회와 경제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AI, 배터리, 반도체, 등 이른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지만,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다행히 지난 11월 16일 교육부에서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하연섭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28-2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국내·외 대학 간 교류 등 국제교육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입국 단계별 체계적인 유학생 입국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면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초청장학생(GKS) 선발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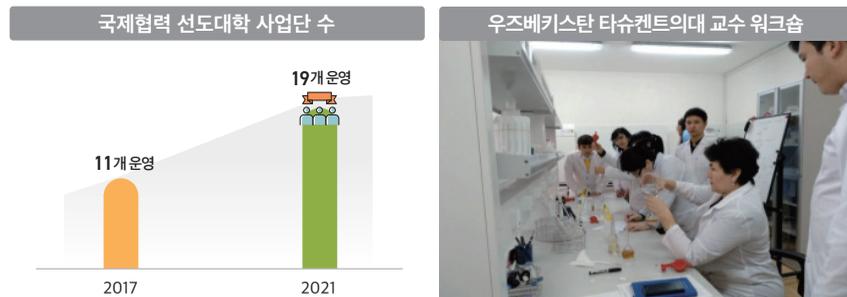


» 해외대학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의 온라인 공동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선('21.10)

기준	교원기준	원격수업 이수범위
	전체 전공 학점의 4분의 10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	전체 교과목 학점수 20% 제한
개선	전체 전공 교과목의 4분의 10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하며, 원격으로 운영되는 수업도 직접 담당하는 수업에 포함	

»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개설,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ODA)를 통한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대학으로 유학중인 유학생 씨는 2019년 2학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 대학에서 유학중인 친구 씨의 경우 유학중인 국가가 국경을 닫아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씨는 소속 대학에 한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대학에서는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혹시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거나 특별휴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씨는 '20년 3월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마치고 수업에 복귀하여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06

전 국민 대상 평생학습체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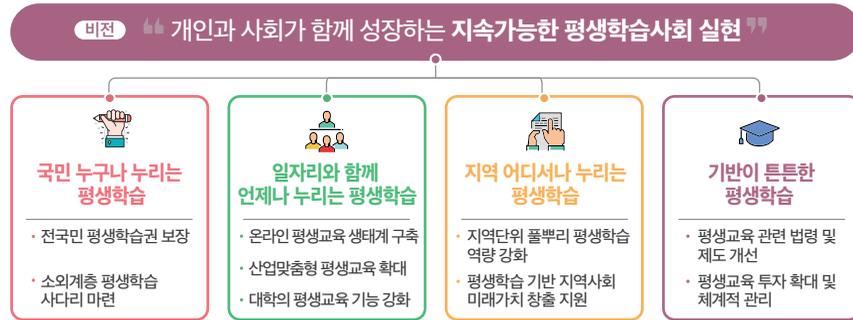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발맞추어
모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탄탄한 평생학습 기반을 다졌습니다.



29.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참여 지원

29-1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코로나19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22~’24)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21.12.9 시행)하였습니다.



“씨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인문·교양 강좌를 꾸준히 수강해왔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필요한 평생학습 정보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여 평생교육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앞으로 평생교육을 더 자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29-2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별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그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추진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학 수	9개교	15개교	21개교	30개교	30개교
전공 수	42개	52개	68개	108개	113개
입학 정원	863명	1,990명	2,707명	3,738명	3,911명
총원율	55%	79%	83%	85%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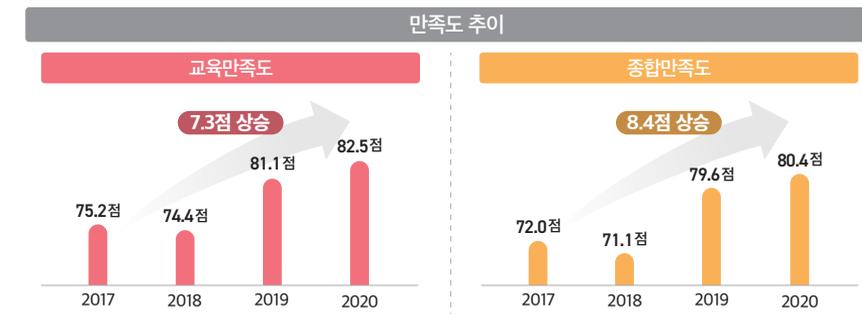
※ LiFE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대학(일반대 23교, 전문대 7교 / 수도권 9교, 비수도권 21교) 지원(’21)

» 유연한 학사 제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LiFE 사업 참여대학별 학사유연화 적용 현황

학사유연화 제도	2018년 참여대학(21개교)		2021년 참여대학(30개교)	
	대학 수	비율 (참여대학 전체 대비)	대학 수	비율 (참여대학 전체 대비)
다학기제	10개	47.6%	22개	73.3%
집중 이수제	15개	66.7%	25개	83.3%
재학 연한 폐지	19개	90.5%	24개	80.0%
학점당 등록금제	13개	61.9%	22개	73.3%
학습경험인정제(RPL)	11개	52.4%	21개	70.0%

»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장○○(25, 회사원)
 항상 새로운 학우들과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은 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직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복지와 상담분야에 대한 학습을 이어나가 훗날 청소년 및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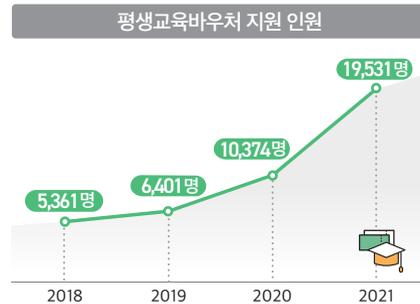
천☆☆(52, 회사원)
 미래융합대학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터득하고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기록하여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집팀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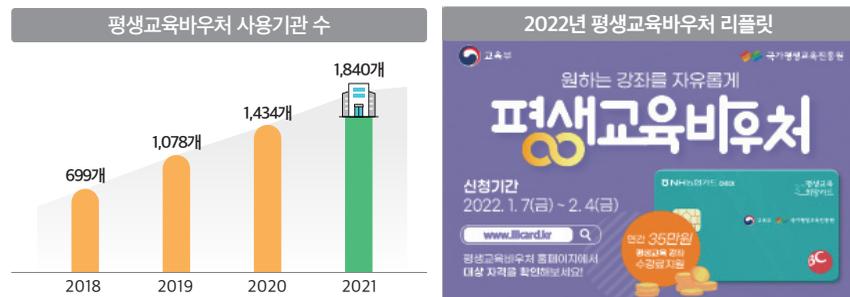
30. 평생교육바우처, K-MOOC 및 매치업 활성화

30-1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였습니다.

»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4년간 총 4만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시설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자본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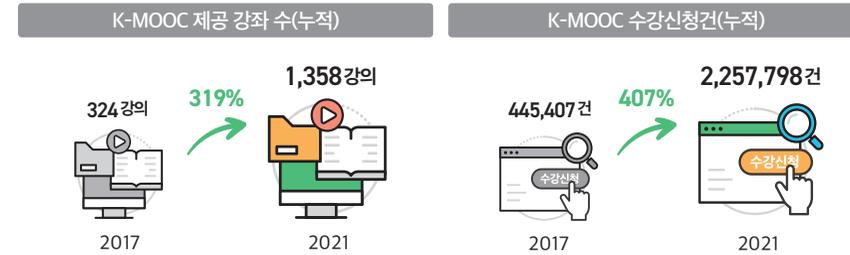
...아이들이 기특하게 잘 자라서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 “나 이제 무엇하며 살지?” 한꺼번에 닥쳐 온 공허한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 며칠 전 면사무소에서 받았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장이 보였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떡볶이조식사” 국가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 자격증도 따고 기술이 생기니 창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 4월. 드디어 공방을 열었습니다. ... 지나간 시간, 아팠던 시절, 방황하던 나를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평생교육 기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내일은 시니어클럽에 수업을 하러 갑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 2020년 평생학습 바우처 수기사례 최우수상 발췌

30-2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K-MOOC를 확대하였습니다.

»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K-MOOC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K-MOOC 수강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해외 석학의 인문·교양 강좌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주제별 강좌를 방송·온라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K-MOOC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기반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부, 늦깎이 만학도의 최고 보물! K-MOOC

“생명과학 관련 전문용어들은 비전공자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품고 있던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는 예상치 못했던 곳, K-MOOC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 물꼬가 터졌습니다. 농사꾼이기도 하지만, 최남단 섬 제주라는 특성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그리 여유롭지 못했는데, K-MOOC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아 볼 수 있었을까요.”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강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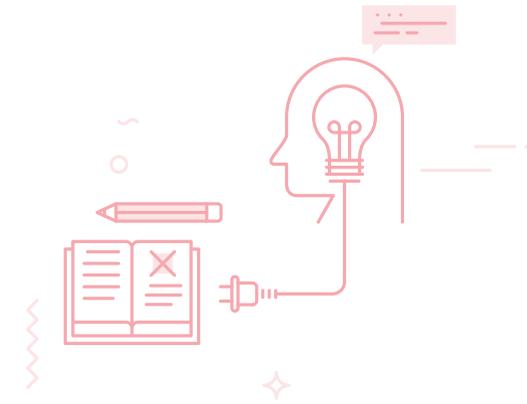
30-3 성인학습자의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을 위해 매치업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 미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매치업 사업 운영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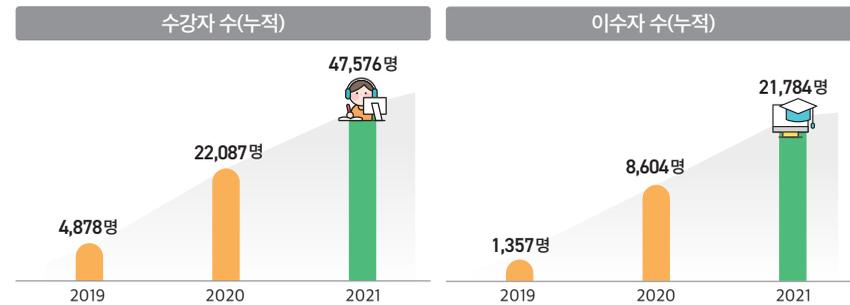


»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도시 등 기업과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교육과정('18. 12개 → '21. 48개(누적))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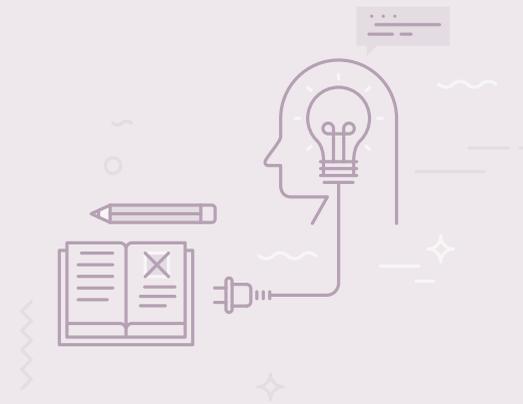
» 3년간('19~'21) 수강자 수는 9배, 이수자 수는 15배 증가하였으며, 매치업 이수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18) 28개 → ('19) 50개 → ('20) 73개 → ('21) 88개



「씨는 매치업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온실 재배 관리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청년창업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 딸 기능가로 이직하는 등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스마트팜 전문 재배사로 성장하였다.

- '21. 매치업 공모 수상자



07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다양한 소통과 논의를 토대로
미래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에도 힘썼습니다.



31.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체계적 준비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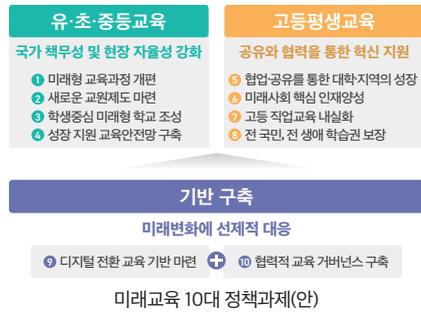
- 미래교육위원회,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미래교육위원회('19.2.~'21.3. 26회),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 13회)



미래교육위원회 워크숍('19.2.)

- 미래교육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전과 건강 등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집약해 '20년 10월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 당사자와의 대화('20.11~12)

-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교육 체제전환 추진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미래교육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교육 전문가 자문회의('21.10)

A고등학교 학생 7명은 코로나 19로 인해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부의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본 중 교육부가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부총리와의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행사에 직접 참가 신청을 하였고,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프로젝트 수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그 경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웠고, 교대로 진학하게 되었다. 지난번 참여 경험 덕분에 최근에 발족한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될 포럼에 토론자나 질문자로 참석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교육자로서의 성장에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32.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17.9)

국가교육회의 운영 체계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교육혁신 방향 설정 상정된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한 자문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연구·조사를 통한 중장기 교육혁신의제 발굴 및 의견 제출 *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현안, 개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운 교육 전반 또는 종합적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의견 제출 *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

- 국가교육회의는 '17년 제1기부터 '21년 제4기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구분	기간	주요 성과
제 1기	'17.12.12 ~ '18.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제 2기	'18.12.18 ~ '19.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OECD 국제교육포럼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공감대 확산
제 3기	'20.2.14 ~ '2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집중 논의
제 4기	'2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제 발굴



한-OECD 국제교육포럼('19.10)



대입제도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18.5)

33.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21년 7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후 교육주체별 역할		
교육부	대학·학교	시도교육청
유·초·중등 사무 중 시·도간 격차 해소, 학생건강 및 안전 등 국가수준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 고등·평생·인적자원·직업교육분야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합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역별 유·초·중등 집행사무를 전담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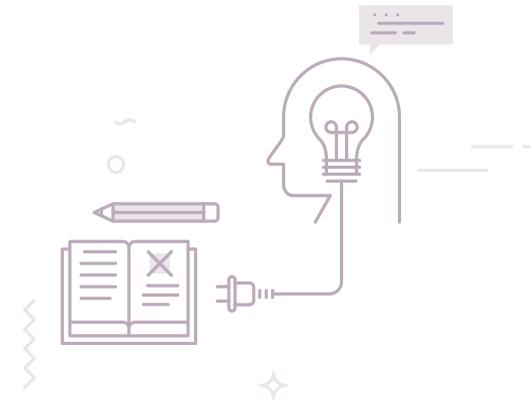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중장기적 관점(10년)으로 우리교육의 미래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제시
학제, 교원, 대입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며 학생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기획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조정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조정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호남권역 토론회('21.12.7.)에 토론자로 초청된 학생 노양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기구인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공평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익명의 이용자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22년 7월 21일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전담조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21.9)하였습니다.

-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 국민의 의견을 들으며,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